

碩士學位論文

女性老人의 美容서비스 利用實態와  
美容施術이 憂鬱感과 自我尊重感에  
미치는 影響

2009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 學科

헤어디자인 專攻

吳 恩 政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崔 允 姬

女性老人의 美容서비스 利用實態와  
美容施術이 憂鬱感과 自我尊重感에  
미치는 影響

A Study on the Necessity of Beauty Welfare Activities  
- focusing social welfare specialists -

2009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 學科

헤어디자인 專攻

吳 恩 政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崔 允 姬

女性老人의 美容서비스 利用實態와  
美容施術이 憂鬱感과 自我尊重感에  
미치는 影響

A Study on the Necessity of Beauty Welfare Activities  
- focusing social welfare specialists -

이 論 文 을 藝 術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9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뷰티藝術 學科

헤어디자인 專攻

吳 恩 政

吳恩政의 藝術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9年 6月 日

審査委員長 인

審査委員 인

審査委員 인

# 목 차

|                   |    |
|-------------------|----|
| <b>I. 서론</b>      | 1  |
| 1. 연구배경 및 목적      | 1  |
| 2. 연구방법 및 범위      | 4  |
| <b>II. 이론적 배경</b> | 6  |
| 1. 미용 서비스개념과 특성   | 6  |
| 1) 미용서비스의 개념      | 6  |
| 2) 미용서비스의 특성      | 7  |
| 2. 미용서비스 시술 종류    | 9  |
| 1) 헤어미용           | 9  |
| 2) 피부미용           | 11 |
| 3) 화장             | 13 |
| 4) 손·발 관리         | 13 |
| 3. 노인의 개념과 특성     | 14 |
| 1) 노인의 개념         | 14 |
| 2) 노인의 특성         | 14 |
| 4.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 16 |
| 5. 노인의 우울감        | 18 |
| 6. 노인의 자아 존중감     | 20 |
| <b>III. 연구방법</b>  | 22 |
| 1. 연구대상           | 22 |
| 2. 연구방법           | 22 |
| 1) 설문조사           | 22 |

|                |    |
|----------------|----|
| 2) 설문지구성 ..... | 22 |
| 3) 측정도구 .....  | 22 |
| 4) 자료분석 .....  | 23 |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24

|                                      |    |
|--------------------------------------|----|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24 |
| 2. 미용서비스의 이용실태 .....                 | 36 |
| 3. 각 시술군의 시술 전 우울감 비교 .....          | 41 |
| 4. 각 시술군의 시술 전 자아존중감 비교 .....        | 44 |
| 5. 각 시술군의 시술 전·후의 우울감 변화량 비교 .....   | 46 |
| 1) 커트 시술 전·후의 우울감 변화 .....           | 46 |
| 2) 펴밍 시술 전·후의 우울감 변화 .....           | 47 |
| 3) 염색 시술 전·후의 우울감 변화 .....           | 49 |
| 4) 복합시술 시술 전·후의 우울감 변화 .....         | 50 |
| 5) 시술 방법에 따른 우울감의 변화량 .....          | 51 |
| 6. 각 시술군의 시술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량 비교 ..... | 52 |
| 1) 커트 시술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 .....         | 52 |
| 2) 펴밍 시술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 .....         | 53 |
| 3) 염색 시술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 .....         | 54 |
| 4) 복합시술 시술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 .....       | 55 |
| 5) 시술 방법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변화량 .....        | 56 |
| 7. 시술 후 시술방법에 따른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량 비교  | 57 |

#### V. 결론 ..... 58

|                      |    |
|----------------------|----|
| 1. 요약 .....          | 58 |
| 2. 조사의 한계 및 제언 ..... | 60 |
| 참고문헌 .....           | 62 |
| <부록> 설문지 .....       | 66 |
| ABSTRSCT .....       |    |

## 표 목 차

|                                            |    |
|--------------------------------------------|----|
| <표 1> 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                  | 4  |
| <표 2-1> 평균수명 추이 .....                      | 7  |
| <표 2-2> 자살 사망자와 우울증 환자 수 증가 현황 .....       | 9  |
| <표 4-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 16 |
| <표 4-2>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                   | 18 |
| <표 4-3> 각 시술군의 시술 전 우울감 비교 .....           | 21 |
| <표 4-4> 각 시술군의 시술 전 자아존중감 비교 .....         | 24 |
| <표 4-5> 커트 시술 전·후 우울감 변화 .....             | 25 |
| <표 4-6> 펴밍 시술 전·후 우울감 변화 .....             | 26 |
| <표 4-7> 염색 시술 전·후 우울감 변화 .....             | 27 |
| <표 4-8> 복합시술(커트+펴밍+염색) 전·후 우울감 변화 .....    | 29 |
| <표 4-9> 커트 시술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 .....          | 30 |
| <표4-10> 펴밍 시술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 .....           | 31 |
| <표4-11> 염색 시술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 .....           | 32 |
| <표4-12> 복합시술(커트+펴밍+염색) 시술 전·후 자 존중감 변화 ... | 33 |

## 그 립 목 차

|          |                                  |    |
|----------|----------------------------------|----|
| <그림 1-1> | 시술방법에 따른 우울감 변화량 .....           | 30 |
| <그림 1-2> | 시술방법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량 .....         | 34 |
| <그림 1-3> | 시술방법에 따른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 변화량 비교..... | 35 |

# I. 서 론

## 1. 연구배경 및 목적

현대 사회는 의료기술 및 보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평균수명의 연장 및 사망률의 저하를 가져와 고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통계청<sup>1)</sup>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중이 2005년 현재 9.1%에서 2018년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6년에는 20.8%로 본격적인 초 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프랑스와 스웨덴의 경우가 80년에서 113년에 걸쳐 서서히 고령사회로 변화된 것에 비추어 볼 때 국내 노인 인구의 변화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sup>2)</sup>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노인의 인구가 다수의 집단이 되었다는 의미로 노인에 대한 생각이 소외받는 계층이 아니라 다양하고 적절한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runner(1970)<sup>3)</sup>는 노인들은 사회적으로 은퇴와 더불어 경제적인 불안정과 사회나 가정에서의 역할의 변화에 따른 심리적인 문제가 쌓여 소외감 및 죽음에 대한 공포에 이르기 까지 신체적, 정신적인 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대부분의 노인들은 가능한 한 자기 집에서 노후를 맞이하기를 바라지만 핵가족의 진행으로 의지할 곳이 없어지고, 심신의 쇠퇴로 홀로 살거나 단독의 생활은 점점 어렵게 되었다.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게 되는 노인들은 공동생활로 가족들과의 생활이나 혹은 독신의 개인적인 생활에서 개방적인 공동생활로 변화 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 다른 동료들과의 관계에 의해 양보해야 하는 일등 여러 가지 생활 습성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갈등이 생긴다. 또한 외로움 빈곤에 의한 불안, 우울 등으로 인해 심리적 문제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sup>4)</sup> 현재 국내의 노인 편의시설이나 복지시설을 살

---

1) 통계청(2005), 장래 인구 추계표 :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2) 현재연(2006) 국의 노인음악치료 연구에서 치료 목표 및 음악치료활동 형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

3) 이인자(1976), 노인환자에 대한 통계적 관찰, p. 1

4) 조태예(2009) 고령화 사회를 위한 노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활용방안,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

펴보면 매우 미비한 실정인데 늘어나는 노인인구를 대비해 보다 안정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노후를 대비한 저축증대와 국민연금 등의 확대 노후의 소득이 보장되고 개인주의적인 서구적 가치관이 확산되면서 노인들 자신을 위한 소비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1999년 소비자보호원의 조사에 따르면 고령자들이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비율이 1991년 19% 정도에 머물렀던 의류 직접 구매율이 1999년에는 45%로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식품은 20%에서 38%로, 약품은 31%에서 69%로 각각 늘어났다. 이에 따라 많은 실버산업들이 발달하고 늘어나는 노인들을 위한 상품이나 편의시설이 증가하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 마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미용 산업은 그 초점이 20~30대의 젊은 층에 맞춰져 있어 노년층을 위한 서비스 개발과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인간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무한하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인간의 욕구이며 희망일 것이다. 그래서 최근 들어 많은 사람들은 건강 뿐 아니라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년기의 여성들도 외모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로서 미용서비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미적인 관심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경제적 어려움이나 육체적 질병으로 인하여 미에 대한 욕구조차도 참고 살아가는 노인들이 많은 실정이다.<sup>5)</sup> 여성백서(1999)<sup>6)</sup>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성비는 여성노인 100명당 남성노인이 59명으로 여성노인의 수가 남성노인의 수보다 1.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는 <표 1>과 같다.

---

5) 권정순(2008) 노인의 미용복지 서비스 이용실태와 만족도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

6) 대통령특별위원회, 『1999 여성백서』, 1999, p.159

<표 1> 남녀별 인구 및 성비 추이

(단위 : 천명)

|     | 1990  | 2000  | 2005         | 2010  | 2020  | 2022  | 2030  | 2050  |
|-----|-------|-------|--------------|-------|-------|-------|-------|-------|
| 총인구 | 42869 | 47008 | <b>48875</b> | 48875 | 49326 | 49263 | 48635 | 42343 |
| 남자  | 21568 | 23667 | <b>24191</b> | 24540 | 24680 | 24624 | 24190 | 20734 |
| 여자  | 21301 | 23341 | <b>23947</b> | 24334 | 24646 | 24639 | 24444 | 21609 |
| 성비  | 101.3 | 101.4 | <b>101.0</b> | 100.8 | 100.1 | 99.9  | 99.0  | 96.0  |

자료: 통계청, 2005, 재구성

위 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나이가 들수록 여성노인이 남성노인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다. 여성이 남성보다 장수하고, 이들의 복지욕구가 전반적으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복지 영역은 여성노인의 복지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가부장적인 한국사회에서 여성노인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자립되지 못하고 배우자나 자녀에게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7)</sup>

급격한 사회화로 도시인구와 노인인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현대화는 아직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노인세대에게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사회변동에 따른 핵가족화와 가치관의 변화에서 비롯되는 역할상실과 경제력 상실, 소외감, 질병, 죽음에 대한 불안은 노인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이러한 상실감은 자아존중감이 저하되고 우울감을 초래하게 하여 행복한 노후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sup>8)</sup> 그러므로 노인들이 가정이나 사회에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미적인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게 함으로서 우울감을 극복하고 자신을 존중할 수 있게 노후에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처 할 수 있는 적극적인 탐색과 함께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화 시대에 대응한 적절한 여성노인의 개념과 특성을 알아보고 노년기의 삶에 있어서 미용서비스 항목에 따라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만약 영향을 미친다면 어

7) 전지은(2003) 한국 여성노인의 역할상실 및 사회복지 의존도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

8) 황인자(2002) 여성노인의 빈곤원인과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

는 쪽에 더 효과가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자 함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미용서비스가 음악치료나 미술치료등과 같이 미용치료의 개념으로 사회에 자리를 잡아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이 좀 더 아름답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 나아가 여성노인의 특성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여 여성노인들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을 위한 구체적인 복지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설 1 : 미용시술 전보다 미용시술 후의 우울감이 낮게 측정될 것이다.

연령이 증가하면서 흰 머리카락이 늘고 얼굴에 주름이나 검버섯이 생기는 등 대부분의 노인들은 거부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런 거부감을 갖게 하는 주된 원인은 바로 외모의 노화이다.<sup>9)</sup> 노화로 인해 변한 외모를 미용시술을 실시함으로써 외모에 변화를 줘 우울감에 많은 효과를 줄 것이다.

가설 2 : 미용시술 전보다 미용시술 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측정될 것이다.

노년기에 이르면 감각적, 인지적 상실, 가족과 친구의 상실, 소득과 직업의 상실, 건강의 상실 등으로 자아존중감이 저하된다.<sup>10)</sup>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을 의미 있고 소중하게 느끼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고되고 있다.<sup>11)</sup> 노년기에 이르러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자신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여성노인들이 미용시술을 실시함으로써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효과를 줄 것이다.

가설 3 : 커트군, 펌군, 염색군, 복합시술군 중 복합시술군이 우울감 감소와 자아존중감 증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임현정<sup>12)</sup>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 참여가 우울감의 감소와 자아존중감

9) 엄미란(2002) 여성노인의 노화경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7

10) 김정선(1998) 가정노인과 양로원노인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활동능력,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1), pp148-158.

11) 송애량(2000) 여가활동프로그램 중재가 시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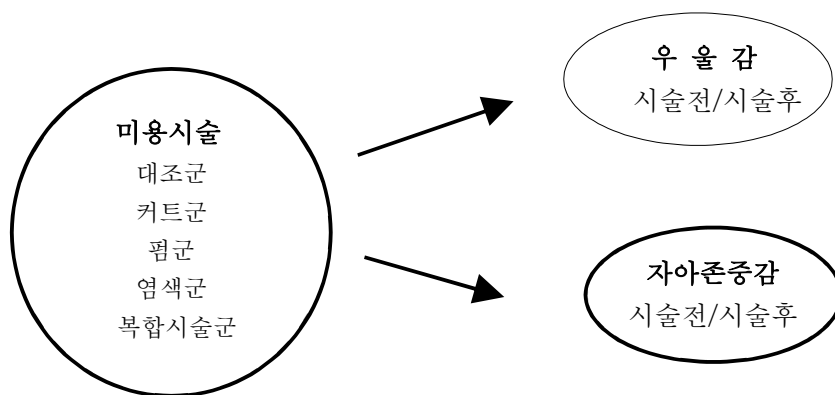
12) 임현정(2007)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p 47

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나타났다. 박혜령<sup>13)</sup>, 오복례<sup>14)</sup> 등 음악 치료나 미술치료 등도 노인들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 미용시술을 이용한 본 연구도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사회복지관과 경로당에 등록된 여성노인 대상자들을 중심으로 여성노인들만이 가지는 특성과 그들의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심리에 중점을 두고 미용서비스의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미용서비스를 실시하기 전과 실시한 후에 노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을 평가하여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미용서비스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이론적 배경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선행연구논문, 노인의 미용서비스와 우울감,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서적이나 단행본, 그리고 통계자료와 보고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그 외에 문헌자료와 기타 정보자료의 수집은 주로 중앙도서관, 통계자료실과 관련된 기관을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13) 박혜령(2004) 집단음악프로그램이 시설노인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45-48

14) 오복례(2006) 뇌졸중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대한 미술치료와 효과에 관하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32-36

## II. 이론적 배경

### 1. 미용서비스의 개념과 특성

#### 1) 미용서비스의 개념

미용은 인간의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키고 인간의 생산의욕을 높이 향상시키는 데 의의와 목적이 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누구나 자유스럽고 평등하게 미를 표현하는 개성시대이다.<sup>15)</sup>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구는 모든 사람, 특히 여성들에게 가장 큰 욕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미에 대한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미용의 필요성이 새롭게 인식되고 있고 발전하는 산업사회의 한 영역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sup>16)</sup>. 이러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욕구로서 미용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용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용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만, 미용교제연구회(1995)에서는 미용을 “복식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름다움을 위하여 용모에 물리적이거나 화학적인 기교를 더하는 것으로 고객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질을 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sup>17)</sup> 공중위생법 제 2조에 의하면 미용업이란 복식 이외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물리적, 화학적 기교를 행하는 것으로서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에 손질을 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용서비스의 종류에는 머리카락 자르기, 퍼머넌트, 머리카락 모양내기, 염색, 손톱 손질 및 화장, 피부미용, 얼굴손질 및 화장으로 분류되어있다.<sup>18)</sup>

---

15) 윤수용(2006) 미용서비스업이 관계마케팅요인이 관계질과 고객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20

16) 김은희(2004) 미용서비스 품질이 미용실 이용고객의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p10

17) 미용교제 연구회, 미용종합 이론, 서울: 유신문화사, 1995 p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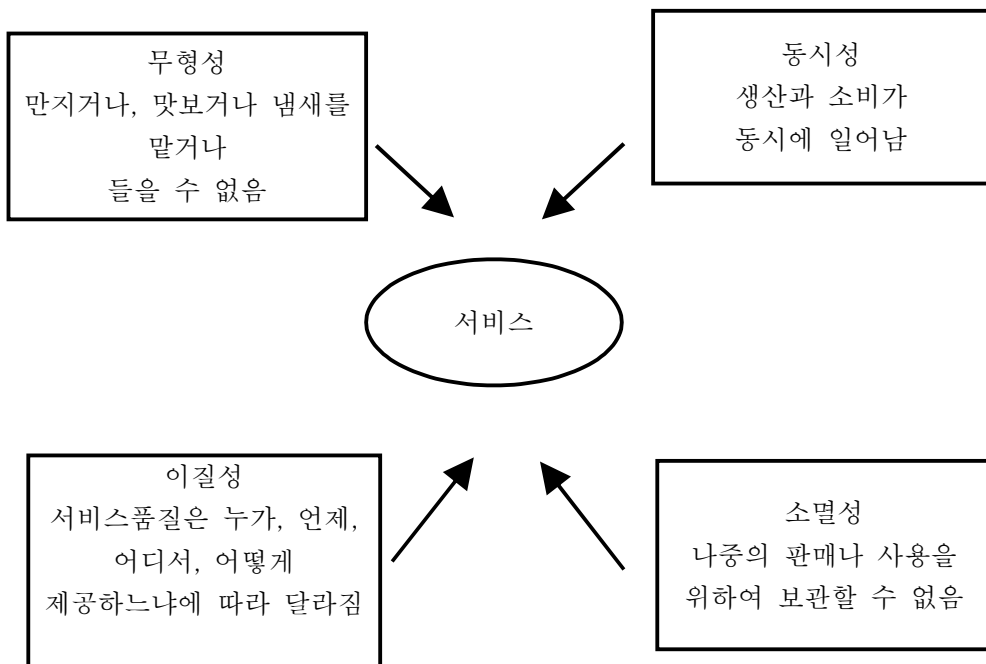
18) 황희순(1996) 미용학개론, 청구문화사 p 16

서비스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 제공하는 편리함이나 활동으로 기본적으로 무형을 말하며 누구의 소유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다.<sup>19)</sup> Uhl & Upah<sup>20)</sup>는 타인을 위하여 수행한 어떤 과업이나 타인의 소유가 아닌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나 제품, 활동 등의 제공으로 교환거래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무형적이고 저장이나 운송이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헤어(Hair)에 해당되는 머리카락 자르기(커트), 퍼머넌트(펌), 염색을 미용서비스라고 지칭하였다.

## 2) 미용서비스의 특성

미용서비스는 인간의 인체를 루고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투입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제공자에 의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미용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특성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서비스의 특징<sup>21)</sup>

19) Kotler, Principles of Marketing, New York : Prentice hall, Inc., 1990, p. 9.

20) D. Upah, Gregory (1980), "Mass Marketing in service Retailing : A Review a good Product," Harvard Business Review, 61 (July- August), pp139-145

21) 이동휘 외4, 『마케팅산책』, 도서출판두남, 2004, P. 320.

#### (1) 무형성(intangibility)

서비스는 보통의 제품처럼 눈으로 보거나 만질 수 없고, 단지 가시성만 갖는다. 즉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을 이용하여 지각 할 수는 있다. 미용서비스는 근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 요소와 결합하여 제품화되기 때문에 서비스의 본질에 있어서 무형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머리를 커트해서 아름답게 하는 일은 행위 혹은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어느 일정한 시간에만 존재한다. 미용서비스를 시작하면 끝날 때 까지 고객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어 이런 상황에서는 가격이나 설비, 종업원의 외모, 고객층 등 눈에 보이는 부분을 판단의 근거로 그 품질을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sup>22)</sup>

#### (2) 소멸성(Perishability)

소멸성은 판매되지 않은 서비스는 사라진다는 것으로 그 서비스가 재고화 되거나 저장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제품은 한번 구입한 후 몇 번이라도 반복하여 사용할 수 있지만, 서비스는 생산과 동시에 소멸된다. 즉 서비스는 오늘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이를 저장하여 다시 팔 수 없는 것이다. 서비스의 수요 변동에 대처하기 위해서 미용업소에서는 예약제나 모닝파마제도, 클레임제도 등을 마련하여 일조의 재고처럼 보관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 (3) 비분리성(Inseparability)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일어나는 특성으로 생산되어 구매자가 소비해 버린 서비스를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 그 예로 한번 잘라버린 머리카락을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없는 것이다. 즉, 미용서비스에 있어서 원천적으로 원상회복은 불가능한 것이다.

#### (4) 이질성(Heterogeneity)

소비자에게 직접 시술하고, 또 사람이 하는 시술이므로 고객에 따라 또

---

22) 月刊美容 と 經營, 新美容出版社, 1991, 11월호, P. 80.

는 시술자에게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미용서비스는 품질이 항상 일정하거나 고르지 않다. 미용실로서는 어떻게 서비스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가, 또는 표준화 시키는가가 큰문제이다.

## 2. 미용서비스 시술종류

미용서비스 시술 종류에는 크게 헤어미용, 피부미용, 화장, 손·발 관리 등이 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미용 서비스는 대부분이 헤어 미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도 헤어 미용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으나 향후 피부미용이나 화장, 손·발 관리 영역에서도 지속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헤어미용

헤어미용은 빗, 가위, 레이저(razor), 헤어아이론(hair iron)등의 시술도구와 헤어드라이어(hair dryer), 히팅 캡(heating cap), 헤어스티머(hair steamer)등의 미용기기를 사용하여 뷰티살롱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미용서비스분야의대표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sup>23)</sup>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28조에는 미용업무를 퍼머넌트, 머리카락 자르기, 머리카락 모양내기, 머리피부손질, 머리카락 염색, 머리감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헤어미용은 상담, 헤어디자인, 헤어스타일 시술 및 보정의 단계로 이루어지며 가장 보편화되어 있고 따라서 고객층이 가장 넓은 미용서비스의 분야이다

헤어미용시술에는 크게 헤어컷(hair cut), 퍼머넌트(permanent), 헤어 염색(hair coloring)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커트, 펌, 염색이라고 지칭하였다.

### (1) 커트

---

23) 김미정(2009) 미용서비스산업에서 지각된 대기시간이 서비스평가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9

커트(cut)란 사전적 의미로 자르다·절단하다는 뜻으로 모발의 길이를 결정하고, 모양을 정리하여 헤어스타일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다.<sup>24)</sup> 커트는 헤어스타일을 만들기 위한 기초 형성 기술이다. 퍼머넌트 웨이브와 헤어 세팅에 따라서 완성되는 헤어스타일은 모두 커트 기술에 의해서 미리 형성된다. 헤어 커트를 헤어 세이핑이라고도 말하지만, 그 의미는 ‘머리 형태를 만들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헤어 커트에는 모발의 길이를 정리하는 것, 모발의 밀도를 정리하는 것을 통해서 머리 모양을 완성시키기 위한 기초를 만드는 것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sup>25)</sup>

## (2) 펌

펌(perm)이란 퍼머넌트 웨이브라고도 하며, 역사는 3000년경 이집트인들이 나일강 유역의 알칼리 토양인 진흙을 모발에 바른 후 나무 봉에 감아 태양열에 건조시켜 웨이브를 만든 것이 기원이라고 할 수 있다. 펌은 자연 상태의 모발에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을 가하여 모발의 구조나 형태를 변화시켜 웨이브 상태를 형성 시키는 것으로<sup>26)</sup>모발의 볼륨감과 방향감의 효과를 얻어 다양한 질감의 표현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펌은 머리형태의 결점을 보완하고 머릿손질의 간편함을 즐기며 자신만의 개성과 이미지 변신 및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최근 연예인들의 영향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도 펌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펌은 미적 욕구를 만족시키는 헤어 연출의 필수적인 과정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sup>27)</sup>

## (3) 염색

염색은 단지 색을 밝게 변화 시키는 탈색과는 달리 자연 모발, 염색모발의 자연적인 색조를 화학물질에 의해 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한다.<sup>28)</sup>

모발염색을 표현하는 단어로는 헤어 컬러링, 헤어 다이, 헤어 틴트가 있

24) 박진숙(2004) 헤어스타일 선호도 결정요인 분석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1

25) 하성기(2007) 베이직 헤어커트의 응용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9

26) 김금의(2007) 펌에 의한 모발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4

27) 한미옥(2004) 펌 종류·펌제 유형·시술횟수가 모발 손상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2

28) Bolduc C. Shapiro, Hair care product, Clin Dermatol, 19(4) (2001)

는데 헤어 다이는 “착색”이라는 뜻이고 헤어 틴티는 “색조를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sup>29)</sup>

모발염색은 일반적으로 머리카락의 자연적인 색조를 화학물질에 의해 변화 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모발염색과 헤어 블리치는 모발의 색조를 변화시키는 것 자체는 같지만 화학적인 작용은 크게 다르다.

염색은 일시적 염색, 반영구적 염색, 영구적 염색, 탈색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각기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각 유형의 차이점을 잘 파악하여 시술해야 한다. 일시적 염색은 칼라 헤어스프레이, 헤어 마스카라, 칼라무스, 젤 등을 이용하여 인공색소를 모표피의 바깥쪽에 도포하는 방식으로 샴푸하면 모두 지워지는 방식이다. 반영구적 염색은 칼라코팅, 헤어 매니큐어 등으로 불리며 인공색소가 모표피와 모피질 피층에 침투되는 방식으로 종류에 따라서 1~2주 정도 지속성을 지니고 있다.<sup>30)</sup> 영구적 염색은 탈색과 발색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원하는 색을 얻을 수 있다. 영구적 염료는 모발의 모표피 층을 통과하여 모피질 층에 들어간다. 이때 과산화수소의 작용으로 산화되어 자연 색소와 마찬가지로 모발의 전체에 분포된다. 시술 방법에는 단 한 번에 탈색하고 발색할 수 있는 단일과정 염색과 줄무늬, 하이라이팅 등이 있다.<sup>31)</sup>

## 2) 피부미용

피부는 신체 중 가장 큰 기관으로서 항상 외부와 접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극이나 환경 및 화학물질로부터 생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다른 기관에 비하여 새로운 세포의 생성과 소멸이 활발히 일어나는 기관이다.<sup>32)</sup>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체를 싸고 있는 피부의 최외각인 표피는 각질층, 투명층, 과립층, 유극층, 기저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질형성세포, 멜라닌형성세포, 랑게르한스세포, 메켈세포 등이 있다. 진피는 표피 아래에 있는 층으로 유극층과 망상층으로 이루어

29) 이원경(2001), 『HAIR concepts & application』, 청구문화사 p 206

30) 곽형심(1999) 『미용학개론』, 정문각. p 188

31) 조성태 김진숙, 김희숙(2002), 『헤어미용』.(주)중앙 교육 진흥 연구소, p 104

32) 최은규(2006) 가시오가피, 보골지 및 고련피 추출물이 피부질환 및 피부미용관련 기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

저 있고, 혈관, 림프관, 신경, 모낭, 소한선, 대한선 기모근 등의 피부부속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교원섬유, 탄력섬유로 구성된 결합조직과 기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섬유아세포, 비만세포, 등 많은 세포들이 있다. 피부의 최하위 층인 피하조직은 진피의 아래층에 위치한다. 피하조직은 지방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진피에서 나온 교원섬유로 구성된 중격으로 나뉘어진다. 중격은 진피로 가야 할 신경과 혈관들의 통로가 된다. 지방엽은 지방소엽들로 나누어지는데, 지방소엽은 연결조직에 의해 생긴 작은 방들로 지방세포들이 채워져 있다. 33)

피부관리는 미용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얼굴과 전신의 피부, 발톱, 손톱 및 전신의 상태를 개선하고 아름답게 미화시키는 예술인 동시에 과학적인 학문이다<sup>34)</sup> 피부관리는 미용에 있어서 피부가 지닌 모든 기능을 가능한 한 완전히 유지시켜 미용상의 문제점들을 방지하고 젊고도 아름다우며 깨끗한 피부를 가꾸게 해준다는 의미로 사용된다.<sup>35)</sup>

여성들은 통상적으로 ‘마사지 받는다’라고 말하는 일련의 피부미용 행위는 단순한 손 기술에 위한 마사지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피부 관리실에서 행해지는 피부를 아름답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즉 피부를 대상으로 하여 피부상담과 분석, 클렌징, 각질제거, 영양투입, 피부보호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sup>36)</sup>

적외선 등, 자외선 등, 고주파 기기, 갈바닉(galvanic) 전류기, 패러딕(paradic)전류기, 석션(section), 리프팅(lifting)기 등의 피부미용 기기를 이용하여 미용상의 문제성 피부를 개선하고 더 나은 용모를 가꾸기 위해 다양한 기술을 통하여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피부를 관리하는 행동을 말한다.<sup>37)</sup>

### 3) 화장

33) 정소명(2008)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피부관리가 여대생의 피부상태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11~12

34) 광영심외, 『미용학 개론』, 정문각 p 3

35) 김기연외, 『피부관리학』, 수문사 p 5

36) 이차숙(2007) 피부관리실의 고객만족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분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5

37) 김기연외, 『미용학 개론』, 정문각 p 4

보편적으로 쓰이는 ‘화장(化粧)’은 ‘분·연지 등을 바르고 매만져, 얼굴을 곱게 꾸밈’ 또는 ‘머리나 옷의 매무새를 매만져 맵시를 냄’으로 정의하고 있다. 화장은 서구의 메이크업(make up), 페인팅(painting), 토일렛(toilet), 드레싱(dressing), 또는 프랑스어의 마키아주(maquillage) 등에 해당하는데, 그 중 메이크업은 외래어가 되었다. 메이크업은 ‘① 화장하는 일, 특히, 배우가 출연할 때에 화장 또는 분장하는 일. ② 화장품, 분장품, 일반적으로 얼굴 화장을 의미. 연극, 무용, 영화, TV 등에서 역할에 어울리게 하는 스테이지 메이크업과 일상생활에서 하는 메이크업이 있다. 일상생활의 메이크업은 외출용과 실내용으로 구분되지만, 최근 그 구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또한 계절, 광택, 얼굴형, 피부상태, 의복의 형태와 색 등도 고려해야 한다’ 등으로 정의 하고 있다.<sup>38)</sup>

#### 4) 손·발 관리

매니큐어(Manicure)는 손톱과 손을 아름답게 하는 기술로 손(Manus)과 관리(Cure)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으며, 페디큐어(Pedicure) 역시 발톱과 발을 아름답게 하는 기술로 발(Pedis)과 관리(Cure)에서 유래 되었다.<sup>39)</sup>

이러한 맥락에서 네일 전문가들이 의미하는 매니큐어의 뜻은 손톱 모양 정리, 큐티클(Cuticle)정리, 굳은살 다듬기, 손 마사지와 팩, Polish 칠하기, 네일아트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전 과정을 포함한 ‘손·손톱의 종합적인 손질 및 관리’이다.<sup>40)</sup> 페디큐어 또한 매니큐어와 마찬가지로 ‘발·발톱의 종합적인 손질 및 관리’이다.

### 3. 노인의 개념과 여성노인의 특성

38) 최영경(1998) 한국여성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 여성잡지 미용 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7

39) 김광숙 외, 『네일케어 & 아트』, 고문사, 2000, p 2

40) 서지영(2005) 네이아트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

## 1) 노인의 개념

노인이란 단순히 연령에 의해 규정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심리학적, 사회학적 측면과 관련된 종합적인 개념으로서 국제노년학회<sup>41)</sup>에서 다음과 같이 노인을 규정하고 있다. 노인이란 ① 환경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신체조직에 결손이 있는 사람 ② 자신을 통합하려는 능력이 감퇴되어 가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③ 신체의 조직기능에 쇠퇴현상이 일어나는 시기에 있는 사람 ④ 생활에 있어서 적응성이 적극적으로 결손 되어가고 있는 사람 ⑤ 조직 및 기능 축적의 소모로 적응 감퇴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sup>42)</sup> 다시 말하면 노인이란 일반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돌입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측면에서의 상실현상을 겪고 있고 이에 따른 독특한 성격유형을 형성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노인이란 은퇴의 시기를 노년기의 시작이라고 보는 경향과 만 60세를 회갑연으로 하는 전통에 따라 생활보호법(1961)에서 보호 노인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그리고 노인복지법(1981)에서는 65세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sup>43)</sup> 이처럼 일정한 나이를 설정하여 그 나이 이상 전후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하고 있지만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나이로 노인을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복지관에 등록할 수 있는 연령이 65세 이상인 점을 감안하여 65세 이상의 여성을 여성노인으로 지칭하였다.

## 2) 여성 노인의 특성

2003년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평균수명은 77.5세 (여자 80.8세, 남자 73.9세)<sup>44)</sup>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략 7년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받아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서도 여성노인의 인구 증가 추세가 남성노인의 인구증가 추세보다 훨씬 앞서고 있다. 이러한 성비 불균형 현

41) Report on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erontology, 1951, 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연감 (1971): 10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 총람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7), pp10-11

42) 김태현(1982) 가족해체와 공동체 위기, 21세기 논단, 12,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 63-67

43) 서정은(1995)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참여 몰입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p 3

44)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2006, 8

상은 나이가 많을수록 더 심화되어 여성노인의 수가 훨씬 많아지고 있다.  
남,여 평균수명 추이는 <표2-1>과 같다.

<표 2-1> 평균수명 추이

(단위 : 세)

|         | 1981 | 1993 | 2002 | 2003        | 2010 | 2020 | 2030 | 2050 |
|---------|------|------|------|-------------|------|------|------|------|
| 계       | 66.2 | 72.8 | 77.5 | <b>79.1</b> | 81.7 | 81.7 | 81.9 | 83.3 |
| 남자      | 62.3 | 68.8 | 73.4 | <b>73.9</b> | 76.2 | 78.2 | 79.4 | 80.7 |
| 여자      | 70.5 | 76.8 | 80.4 | <b>80.8</b> | 82.6 | 84.4 | 85.2 | 86.6 |
| 차이(여-남) | 8.3  | 8.0  | 7.1  | <b>7.0</b>  | 6.4  | 6.2  | 6.0  | 5.9  |

자료 : 통계청, 2003년 생명표, 2005

노인의 심리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신체적인 나이와 밀접한 상관이 있는 생물학적 또는 유전적 결정 요인들은 어린 시절에는 많은 영향을 미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줄어든다. 반면에 직업의 변화, 건강, 배우자의 죽음 등과 같은 개인적인 경험이 나타난 시기와 기간, 형태가 중요하게 되며,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자신이 속한 사회나 문화가 겪게 되는 사회 문화적인 요인들이 점차 영향을 미치게 되고 상대적으로 중요하다. 성격적 특성으로는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신체적 질병, 배우자의 죽음, 경제사정의 악화, 사회와 가족들로부터의 고립, 일상생활에 대한 자기통제 불가능, 그리고 지나온 세월에 대한 회한 등으로 인한 우울 증세를 볼 수 있다.<sup>45)</sup> 생리적 특성으로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흰머리로 변하게 되고 탈모현상도 일어나는 건 물론이고 청각이나 시각이 점점 감퇴되고 피부에 주름이 생기면서 탄력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근육의 힘과 신장의 여과기능이 감소되고 뼈가 약해지며 여러 신체 조직이 허약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게 된다.<sup>46)</sup>

여성노인의 경우 남성과는 달리 여성만이 갖는 생리적·신체적 특성이

45) 노미경(2008)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p 16

46) 이경수(2003) 여성 노인의 무용활동 참여가 생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3

있으므로 그 개념을 남성노인과 달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성노인은 중년기의 생리학적·심리학적 문제의 특유한 항목으로서 폐경기가 있고, 시모나 조모의 지위를 얻음에 따라 노성자각이 시작된다는 것, 이와 관련하여 가정살림의 주도권을 양도함에 따라 노성자각이 촉진된다는 것, 탈부기의 감정의 변화가 여성노인이 한층 더 크다고 한다.<sup>47)</sup> 이렇게 생리적·신체적 특성과 여성으로서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경우 가족과 사회로부터 상실감을 갖게 되고 배우자의 사별은 더 깊은 우울증을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단계로서 노인의 질적인 삶은 자아 존중 감, 인생의 즐거움, 안녕 감의 유지가 중요하며,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로는 우울, 감각상실, 지구력 및 활동의 감소, 자아 존중 감의 감소, 위엄의 감소, 독립성의 상실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노인이 노화과정을 적절히 적응해 나가지 못할 경우, 우울과 자아 존중 감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노인의 전반적인 안녕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sup>48)</sup>

#### 4.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우리나라의 경우 현대화는 196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야기된 핵가족화나 노인의 부양의식 약화 등으로 인한 노인문제가 사회적 관심영역으로 부상되기 시작 되었다. 그런 후 노인문제가 실질적인 사회문제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전후이다.<sup>49)</sup> 무엇보다도 노인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회구조의 변화이다. 다시 말하면 급격한 산업사회로 인하여 가족제도나 생활방식이 변화됨에 따라서 어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가족관계가 부부중심, 자녀중심으로 바뀌고 그 결과 여러 가지 노인문제가 야기되었다. 노인문제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노령에 수반되는 사회생활상의 여러 가지 곤란을 말한다. 즉 노인에게는 인간으로서의 사회생활의 기본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여러 문제가 발

47) 남영선(2006) 여성노인의 가족생활 특성에 따른 가족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 p 16

48) 나미희(1999) 노인의 우울 척도와 자아존중감 척도를 통해본 치료적 음악활동의 효과.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18

49) 현희성(1983) 한국노인복지 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27

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노인문제의 범주 내에 들어간다. 그 기본욕구는 크게 경제적인 안정, 가족관계의 안정, 사회적인 안정, 건강의 안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욕구들이 현실적인 욕구로 발현하게 되는 바 병고(심신의 건강 상실), 빈고(경제적 가난), 고독(인간관계 단절), 무위(사회적 역할상실)로 집약될 수 있다. 이를 노인의 네 가지 고통이라고 한다.<sup>50)</sup> 그렇다면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차원에서 그 초점을 두면서 노인문제에 대한 과제를 크게 대별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sup>51)</sup>

첫째, 노인인구의 상대적 구성비가 커져감에 따라서 노인의 의존성, 즉 자녀에 의한 부양형태의 변화에서 오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양부담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당분간은 소년인구의 부양자수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어서 사회 전체의 부양부담이 그렇게 가중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장래 노년인구의 증가추세를 보면 노인부양문제는 보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실제로 노부모와 동거하는 며느리나 딸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훨씬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보고되었다.<sup>52)</sup>

둘째, 전통적 가족제도에 의한 노인부양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과거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유교적 윤리관이나 혈연공동체적 생활양식에 의하여 노인은 가족생활이나 지역 사회에서 가부장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서 노후 생활에 대한 보호기능은 별다른 사회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 이르러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방식이 변하면서 기존의 가족제도나 혈연적 연대에 의한 노인 부양의 기능도 쇠퇴하여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결과 노인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노인 자신의 경제생활면에서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업화 사회로 전환됨에 따라 종래의 단순기술과 경험에 의한 지식만을 갖는 농업중심에 종사한 노인들이 소득의 원천을 상실하여 물리적, 정신적 측면에서 소외되어 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개인능력 중심의 가치관의 보편화로 노인층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나 권위가 점차 하락하고 경로

50) 岡村重夫(1972) 社會福祉學. 東京. 紫田書店 p119

51) 차홍순(1985)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한국노년학회지』 제 6권 p 65

52) 이신숙(1994)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모와의 유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 12

효친의식의 구조마저 퇴색되어 노인들이 사회와 가정에서 설 자리가 없어져 가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평균수명이 연장되어 장수한다는 것 자체가 노후의 건강생활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크게 한다. 신체적 노쇠현상과 노인성 질환의 급증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더욱 심각한 상황은 국민소득의 향상, 생활수준의 개선, 의학기술의 발달과 보건위생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노년인구의 비율이 급성장 추세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노인들의 생활보장문제, 보건의료 및 복지 서비스문제 등은 주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하겠다. 또한 이런 노령인구의 비중 증가는 노후의 경제생활, 노년인력의 활용, 노인부양, 여가활용 문제, 의료보호, 복지서비스 등 여러 가지 노인문제를 더욱 더 야기 시키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sup>53)</sup> 결국 노인문제는 그 발생의 배경 및 과정의 성격 때문에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관심과 대응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문제로서의 노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실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

## 5. 노인의 우울감

일반적으로 우울은 우울증과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울증은 정신과의 전문 용어로서 우울한 기분을 억누른다는 뜻으로 넓은 의미의 ‘억울(抑鬱)’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비하여 우울은 울적함을 걱정하고 염려한다는 보다 넓은 정서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54)</sup>

노인의 우울은 그들이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노화와 우울은 서로 연관성이 많다. 노인에게는 누구나 우울 경향이 약간씩은 있으며, 이는 노화에 따라 신체적, 사회적 상실이 증가하므로 어느 정도의 우울증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또한 노인의

---

53) 임춘식(199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유봉출판사, p98

54) 황수섭(1999) 노인의 우울과 관련되는 심리, 환경적 요인에 관한 연구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9

우울증은 노화로 인한 자아존중감의 상실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sup>55)</sup> 다시 말하면 우울감이라 함은 정상적인 기분변화로부터 병적 상태에 이르기까지 연속선상에 있으며 근심, 무력감, 침울함, 무 가치감을 나타내는 정서 상태로 그 범위가 매우 넓다.<sup>56)</sup>

심리학적 관점에서 우울을 설명하는 이론에는 정신분석이론, 학습이론, 인지이론 등이 있다. 정신분석이론에서는 대상의 상실에 따른 반응의 무의식적 갈등을 우울상태로 보며 학습이론에서는 우울과 연관된 활동의 감소를 강화의 결핍으로 본다. 인지이론은 학습된 무기력이론과 역기능적 사고이론이 포함된다.<sup>57)</sup>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신체적, 심리적, 사회·환경적 요인들이 서로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인의 질병은 노화에 따른 생리적 현상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의 정서적 불안을 노년기의 징후로 당연시하여 그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sup>58)</sup> 우울의 주요 임상적 특징은 수면부족, 식욕상실이나 과식, 피곤, 무기력감, 생산성의 감소, 흥미의 상실, 활동의 감소, 죽음이나 자살에 대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것 등이 있다.<sup>59)</sup> 이렇게 우울증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눈에 띄게 변해가는 노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 사망자가 전년도보다 14.3% 늘어나는 등 2000년 이후 단 한해를 빼고 해마다 자살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자살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우울증으로 알려졌다며, 우울증으로 인해 병원을 찾는 사람들도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자살 사망자는 1983년에는 8,622명으로 전년 대비 42%가 늘어났고, 2003년에는 1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sup>60)</sup> 우리나라 자살 사망자와 우울증

55) 우순애(2002) 집단미술치료가 여성노인의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재인용 p 20

56) 김수영(1998) 집단회상요법이 노인의 통증,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p 19

57) 이희순(2007) 대상관계 심리프로그램이 노인의 우울과 자아통합감에 미치는 효과 명지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9

58) 김지숙(2008)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원 석사논문 p 15

59) 최형업(2008)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p 11

60) 정호영(2009) 노년기 여성 우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p 23

환자 수 증가 현황은 <표2-2>와 같다.

<표2-2> 자살 사망자와 우울증 환자 수 증가 현황

(단위 : 명)

| 구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
| 자살사망자             | 10,897  | 11,491  | 12,010  | 10,652  | 12,2174 |
| 우울증진료인원<br>(건강보험) | 395,457 | 422,663 | 459,222 | 479,095 | 525,466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2007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사망자가 늘어나는 지금 노인들에게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무관심, 괴로움, 무기력감 등이 지속 되지 않도록 사회, 그리고 가정에서 노인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 6. 노인의 자아 존중감

자아존중감이란 1890년에 James가 자아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후,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인성이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Coopersmiht(1967)의 정의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첫째로 개인에 관한 평가로서, 그 평가를 관습적으로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로 인정과 불인정의 태도를 표현하며 셋째로 자신의 능력이 있고, 의미 있고, 가치 있다고 믿는 정도이다. 손화희(1998)<sup>61)</sup>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이 지각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적 태도이며, 자신의 성취와 주요 요인 및 모든 종류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가치판단으로 인간의 발달과 적응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개인의 행복감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개념으로 주변인물의 반영과 평가, 그들과의 비교를 통해 또는 자신의 행위를 결과에 의한 자신의 역량 및 가치판단을 통해 획득되어 가는 반영된 평가과정이라고 불

61) 손화희(1998) 재가복지 수혜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24

수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종화<sup>62)</sup>는 여성노인의 자아존중감을 교육정도, 연령, 자녀수, 혼자 살아온 기간, 소득 만족도, 여가활동 참여정도에서 다른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의 저하와 직장에서의 은퇴, 배우자나 친구, 친지의 죽음으로 인하여 사회활동과 역할기회가 급격히 감소되어 자아의 확장으로 간주되어오던 건강, 경제력 등이 감소되고 타인으로부터 받는 수용 및 관심과 애정이 감소되고 사회에서 인정을 받을 기회가 줄어들게 되어 자아존중감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sup>63)</sup> 김미혜<sup>64)</sup>의 경우는 경제적 곤란이 사회적 지지를 높이게 되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아짐과 동시에 우울감은 낮아진다는 결과도 보이고 있다. 또한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노령에 대한 고정관념을 가져오고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연구에서 부정적인 고정관념은 자아존중감을 감소시키고, 자아존중감이 감소되면 평소 생활에서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감소한다고 주장하고 있다.<sup>65)</sup> 즉, 노인들이 겪고 있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상실감 등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노인들에게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자신의 존재를 존중하지 못하는 노인들을 위해 효과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 가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

62) 이종화(2005)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및 건강증진 행위 『정신간호학회지』 p 14

63) 박현숙(1993) 집단인지요법이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고독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p 48

64) 김미혜 외(2000) 노년기 우울증 원인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p 19

65) Rodin, Langer, 1980, 김규엽(2005)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 38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경로당, 독거노인, 복지회관 등에 계신 65세 이상의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에 참여하였고, 의식이 명료하고 의사소통의 장애가 없는 여성노인을 중심으로 미용서비스를 실시하지 않은 대조군 10명, 커트 시술군 10명, 펌 시술군 10명, 염색 시술군 10명, 복합 시술군(커트+펌+염색) 10명 등 총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 2. 연구방법

##### 1) 설문조사

노인의 특성상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FGI(Focused Group Interview) 방식을 통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9년 02월 20일부터 28일까지 예비설문을 실시한 결과로 설문지를 수정하고 보완 작업을 하였으며 본설문은 3월 2일부터 4월 5일까지 소요되었다.

##### 2) 설문지 구성

설문지의 문항은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5문항, 노인들의 심리 및 외모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2문항, 미용서비스 이용실태를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7문항, 노인의 우울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15문항, 노인의 자아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이 10문항 등 총 3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3) 측정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측정도구는 노인의 우울감 척도, 노인의 자아존중감 척도이다.

#### (1) 노인의 우울감 측정도구

우울감의 측정도구는 Sheikh와 Yesavage(1986)가 노인들을 위해 개발한 간소화된 노인우울척도를 기백석(1996)이 한국판 노인우울척도로 표준화한 것을 실시하여 얻은 점수를 뜻한다. 15개의 문항으로 5점 평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조금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이다. 측정값이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 (2) 노인의 자아존중감 측정도구

자아존중감 측정도구는 로젠버그(Rosenberg)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중평가적인 측면을 전병재(1974)가 번역한 것이다. 10개의 문항으로 5점 평점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2점-그렇지 않다, 3점-보통이다, 4점-조금 그렇다, 5점-매우 그렇다)이다. 측정값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나타낸다.

#### 4) 자료분석

본 연구의 통계적 자료의 분석은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5.0, SPSS Inc., Illinois, USA)를 사용하였다.

- (1)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미용행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n(%)로 표시하였다.
- (2) 각 군의 비교는 교차분석(chi-square test)을 실시하였다.
- (3) 시술 전 대조군, 커트군, 펌 군, 염색 군, 복합시술군의 동질성 검증이 이루어졌으며,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은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 (4) 각 시술방법에 따른 시술 전과 후의 우울감 및 자아 존중감 비교는 paired t-test를 사용하였다.
- (5) 시술방법에 따른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 변화량 비교는 ANOVA를 적용하여 Duncan법으로 사후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고찰

### 1.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전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연령, 동거상태, 주요수입원, 현재 건강상태에 따라서 분석하였다. <표4-1>은 총 응답자 50명을 대조군과 각각의 시술군에 따라서 분류한 결과이다. 대상자는 대조군, 커트군, 펌 군, 염색 군, 복합 시술군(커트+펌+염색) 각 10명으로 총 50명이며,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하였다. 만 81세 이상이 1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총 대상자의 28.0%를 차지하였고 65~70세가 13명(26%), 71~75세가 12명(24%), 76~80세가 12명(22%)순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동거상태는 38%에 해당하는 19명의 대상자가 혼자 산다고 답하였으며, 배우자와 함께 사는 경우는 10명(20.0%), 기혼자녀 및 미혼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각 9명(18.0%)를 차지하여 정호영<sup>66)</sup>의 연구 결과와 같이 혼자산다와 배우자와 함께산다, 기혼자녀와 함께 산다 순으로 일치함을 보였다. 현재 주요 수입원은 22명(44.0%)이 국가보조금 및 후원금이라고 답하였으며, 자녀의 용돈 14명(26.0%), 근로소득 8명(16.0%)의 순이었다. 현재의 건강상태에 대한 질문에 대상자의 24명(48.0%)이 보통이라고 답하였으며,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허약하다고 답한 경우도 10명(20.0%)에 달하였다. 한 달 용돈의 액수는 18명(36%)이 20~30만원이하 라고 하였으며, 30~40만원이하가 30.0%인 15명으로 조사되었다. 선우덕<sup>67)</sup>의 보고에 의하면 대부분의 노인들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체적 질환은 없다고 할지라도 86.7%에 달하는 노인들이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요 수입원이 국가 보조금 및 후원금인 것과 건강상태가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허약하다 라고 답한 응답자들을 볼 때 한 달 용돈이 20~30만원이하의 금액은 턱없이 부족한 액수라고 사료된다.

66) 정호영(2009) 노년기 여성 우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p 54

67) 선우덕 외(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 실태 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161.

권정순<sup>68)</sup>에 의하면 노인들의 생활상 문제점으로 경제적인 문제점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장헌일<sup>69)</sup> 또한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경제적 보조가 41.0%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노인문제 해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연령, 현 동거상태, 주요 수입원, 현재 건강상태, 한 달 용돈 액수 등의 항목에서 대조군, 커트군, 펴군, 염색군, 복합 시술군 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4-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문 항          | 대조군<br>(n=10)          | 커트군<br>(n=10) | 펼군<br>(n=10) | 염색군<br>(n=10) | 복합<br>시술군<br>(n=10) | 전체<br>(n=50) | p-value |
|--------------|------------------------|---------------|--------------|---------------|---------------------|--------------|---------|
| 연 령          |                        |               |              |               |                     |              |         |
| 만 65~70세     | 2 (20.0) <sup>1)</sup> | 2 (20.0)      | 2 (20.0)     | 3 (30.0)      | 4 (40.0)            | 13 (26.0)    | 0.476   |
| 만 71~75세     | 2 (20.0)               | 0 ( 0.0)      | 3 (30.0)     | 3 (30.0)      | 4 (40.0)            | 12 (24.0)    |         |
| 만 76~80세     | 3 (30.0)               | 2 (20.0)      | 3 (30.0)     | 2 (20.0)      | 1 (10.0)            | 11 (22.0)    |         |
| 만 81세<br>이상  | 3 (30.0)               | 6 (60.0)      | 2 (20.0)     | 2 (20.0)      | 1 (10.0)            | 14 (28.0)    |         |
| 현동거상태        |                        |               |              |               |                     |              |         |
| 배우자          | 1 (10.0)               | 2 (20.0)      | 1 (10.0)     | 3 (30.0)      | 3 (30.0)            | 10 (20.0)    | 0.418   |
| 기혼자녀         | 1 (10.0)               | 0 ( 0.0)      | 3 (30.0)     | 3 (30.0)      | 2 (20.0)            | 9 (18.0)     |         |
| 미혼자녀         | 2 (20.0)               | 1 (10.0)      | 3 (30.0)     | 0 ( 0.0)      | 3 (30.0)            | 9 (18.0)     |         |
| 혼자           | 6 (60.0)               | 6 (60.0)      | 3 (30.0)     | 3 (30.0)      | 1 (10.0)            | 19 (38.0)    |         |
| 기타           | 0 ( 0.0)               | 1 (10.0)      | 0 ( 0.0)     | 1 (10.0)      | 1 (10.0)            | 3 ( 6.0)     |         |
| 주요수입원        |                        |               |              |               |                     |              |         |
| 자녀의 용돈       | 2 (20.0)               | 1 (10.0)      | 3 (30.0)     | 5 (50.0)      | 2 (20.0)            | 13 (26.0)    |         |
| 저축 및<br>재산수입 | 0 ( 0.0)               | 0 ( 0.0)      | 2 (20.0)     | 1 (10.0)      | 1 (10.0)            | 4 ( 8.0)     |         |

(표 계속)

68) 권정순(2008) 노인 미용복지 서비스 이용실태와 만족도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p 47

69) 장헌일(1997) 노인 실태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p64

| 문 항                                | 대조군<br>(n=10) | 커트군<br>(n=10) | 펄군<br>(n=10) | 염색군<br>(n=10) | 복합<br>시술군<br>(n=10) | 전체<br>(n=50) | p-value |
|------------------------------------|---------------|---------------|--------------|---------------|---------------------|--------------|---------|
| 개인연금<br>이나 보험<br>근로소득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3 (30.0)            | 3 ( 6.0)     | 0.061   |
| 국 가 보 조 금                          | 2 (20.0)      | 1 (10.0)      | 2 (20.0)     | 1 (10.0)      | 2 (20.0)            | 8 (16.0)     |         |
| 및 후원금                              | 6 (60.0)      | 8 (80.0)      | 3 (30.0)     | 3 (30.0)      | 2 (20.0)            | 22 (44.0)    | 0.328   |
| <b>현재건강<br/>상태</b>                 |               |               |              |               |                     |              |         |
| 건강하다                               | 1 (10.0)      | 0 ( 0.0)      | 1 (10.0)     | 1 (10.0)      | 2 (20.0)            | 5 (10.0)     |         |
| 보통이다                               | 4 (40.0)      | 2 (20.0)      | 5 (50.0)     | 7 (70.0)      | 6 (60.0)            | 24 (48.0)    |         |
| 정기적으로<br>병원진료를<br>받을 정도로<br>허약하다   | 5 (50.0)      | 7 (70.0)      | 4 (40.0)     | 2 (20.0)      | 2 (20.0)            | 20 (40.0)    |         |
| 입원이나<br>장기 요양이<br>필요할 정도로<br>매우 허약 | 0 ( 0.0)      | 1 (10.0)      | 0 ( 0.0)     | 0 ( 0.0)      | 0 ( 0.0)            | 1 ( 2.0)     |         |
| <b>한 달 용돈</b>                      |               |               |              |               |                     |              | 0.396   |
| 10만원<br>이하                         | 0 ( 0.0)      | 2 (20.0)      | 0 ( 0.0)     | 0 ( 0.0)      | 1 (10.0)            | 3 ( 6.0)     |         |
| 10 ~ 20 만 원                        | 2 (20.0)      | 4 (40.0)      | 3 (30.0)     | 1 (10.0)      | 2 (20.0)            | 12 (24.0)    |         |
| 20 ~ 30 만 원                        | 6 (60.0)      | 2 (20.0)      | 5 (50.0)     | 3 (30.0)      | 2 (20.0)            | 18 (36.0)    |         |
| 30 ~ 40 만 원                        | 2 (20.0)      | 2 (20.0)      | 2 (20.0)     | 5 (50.0)      | 4 (40.0)            | 15 (30.0)    |         |
| 40 ~ 50 만 원                        | 0 ( 0.0)      | 0 ( 0.0)      | 0 ( 0.0)     | 1 (10.0)      | 1 (10.0)            | 2 ( 4.0)     |         |
| 이하                                 |               |               |              |               |                     |              |         |

<sup>1)</sup> : n(%), p-value measured by  $\chi^2$ -test

일반적 특성의 문항은 연령별, 동거상태별, 주요수입원별, 현재건강상태별, 한 달 용돈별로 5개의 문항이지만 주요수입원, 현재건강상태, 한 달 용돈에 대한 문항은 교차분석하기에는 수가 적어 적합하지 않아 일반적

특성에 대한 문항의 가설은 제외 시켰고, 교차분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주요수입원, 현재건강상태, 한 달 용돈에 대한 문항을 제외한 연령, 동거 상태에 대한 문항만을 선택하였다. 연령과 동거상태에 따른 우울감과 자아 존중감의 결과는 아래의 <표4-2>, <표4-3>, <표4-4>, <표4-5>와 같다.

## 2) 시술 전 연령에 따른 대상자들의 우울감 비교

연령에 따라서 우울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2>와 같다.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다, 앞날에 대해 걱정을 할 때가 많다, 기분이 좋지 않은 편이라고 하는 항목에서 연령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P<0.05$   $P<0.01$ ). 즉 80세 이전의 노인에 비하여 만 81세 이상의 노인의 경우 죽음에 대한 우울감 척도가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통해서 나이가 들수록 우울감을 없애고 노인의 심리적, 정서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사랑의 손길이 무엇보다 절실하게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4-2> 시술 전 연령에 따른 대상자들의 우울감 비교

|                                  | 만 65~75세<br>(n=13)     | 만 71~75세<br>(n=12)     | 만 76~80세<br>(n=11)     | 만 81세<br>이상<br>(n=14)  | p-value |
|----------------------------------|------------------------|------------------------|------------------------|------------------------|---------|
| 쓸데없는 생각<br>들이 떠올라<br>괴롭다         | 3.31±0.95              | 2.42±0.10              | 3.00±1.27              | 3.02±1.22              | 0.232   |
| 밖에 나가기<br>보다는 주로<br>집에 있으려<br>한다 | 2.69±1.60              | 1.83±0.94              | 2.91±1.38              | 2.72±1.68              | 0.283   |
| 나는 오래오래<br>살고 싶지<br>않다           | 2.69±1.32 <sup>a</sup> | 3.08±1.51 <sup>a</sup> | 2.18±0.60 <sup>a</sup> | 4.14±1.23 <sup>b</sup> | 0.002** |

(표 계속)

| 문 항                                                 | 만 65~75세<br>(n=13)      | 만 71~75세<br>(n=12)      | 만 76~80세<br>(n=11)     | 만 81세<br>이상<br>(n=14)  | p-value |
|-----------------------------------------------------|-------------------------|-------------------------|------------------------|------------------------|---------|
| 앞날에 대해<br>걱정을 할<br>때가 많다                            | 4.08±1.19 <sup>ab</sup> | 3.91±1.04 <sup>ab</sup> | 3.64±0.81 <sup>a</sup> | 4.64±0.84 <sup>b</sup> | 0.008** |
| 지금 내가<br>살아있다는<br>것이 기쁘지<br>않다                      | 2.23±0.60               | 2.92±1.17               | 2.55±1.04              | 2.21±0.43              | 0.135   |
| 전보다 내 모<br>습이 추해 졌<br>다고 생각한다                       | 4.08±0.95               | 3.17±1.34               | 3.82±1.17              | 4.07±1.07              | 0.165   |
| 나는 늘 즐겁<br>고 행복하지<br>않다                             | 2.38±0.51               | 2.25±0.62               | 2.64±0.92              | 2.50±0.86              | 0.636   |
| 앞으로 내 주<br>위에 재미 있<br>고 즐거운 일<br>이 많이 생길<br>것 같지 않다 | 3.00±1.29               | 2.50±1.09               | 2.45±1.04              | 2.64±1.08              | 0.623   |
| 앞날에 대해<br>희망적으로<br>느끼지 못한다                          | 2.85±1.28               | 2.58±1.24               | 2.64±0.92              | 3.00±1.36              | 0.814   |
| 인생은 즐거운<br>것이 아니다                                   | 2.62±0.96               | 2.00±0.60               | 2.36±0.67              | 1.86±1.17              | 0.140   |
| 나는 가치있는<br>일을 더 이상<br>할 수 없을 것<br>같다                | 3.69±1.11               | 3.58±1.08               | 3.82±1.17              | 4.14±1.17              | 0.613   |
| 나쁜 일이<br>일어나지 않을<br>까 두렵다                           | 3.08±1.12               | 2.67±0.89               | 3.27±0.91              | 3.08±1.32              | 0.587   |
| 농담을 들어도<br>재미가 없다                                   | 2.92±1.04               | 2.17±1.12               | 2.45±0.93              | 2.43±0.94              | 0.309   |

(표 계속)

| 문 항                                   | 만 65~75세<br>(n=13)             | 만 71~75세<br>(n=12)            | 만 76~80세<br>(n=11)             | 만 81세<br>이상<br>(n=14)         | p-value      |
|---------------------------------------|--------------------------------|-------------------------------|--------------------------------|-------------------------------|--------------|
| 내가 죽어야<br>다른 사람들<br>특히 가족이<br>편할 것 같다 | 2.85±1.52                      | 2.50±1.31                     | 2.91±1.45                      | 3.36±1.45                     | 0.508        |
| <b>총 점수</b>                           | <b>45.00±5.40<sup>ab</sup></b> | <b>39.27±6.87<sup>a</sup></b> | <b>43.64±6.20<sup>ab</sup></b> | <b>46.54±8.71<sup>b</sup></b> | <b>0.084</b> |

1) : Mean±S.D. \*P<.05 \*\*P<.01

a,b,c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 at p<0.05 by ANOVA

### 3) 시술 전 연령에 따른 대상자들의 자아 존중감 비교

연령에 따라서 자아 존중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3>과 같다.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때때로 나 자신 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는 항목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즉 연령이 많아질수록 모든 면에서 자아 존중감이 점점 낮아진다는 사실이다. 이 결과는 우울감의 결과와도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연령에 따라서 점점 높아지는 우울감이나 낮아지는 자아존중감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 가운데 가장 일차적인 방법은 상담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자의 경우 미용서비스를 통하여 많은 대상자들의 상담역할을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알게 되었다. 과 Schlossberg(1990)<sup>70)</sup>등도 노인 집단이 다른 성인집단과 구별되는 점은 건강과 열정이 쇠퇴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과 자신의 삶을 조절하기 위한 건강의 상실이나 친구나 가족의 상실 등이며 자신이 살아온 삶과는 다른 현재의 사회 환경이나 역사적 배경, 그리고 노인의 일상적 욕구를 만족시키는데 필요한 자원 등이다. 그러므로 노인 상담은 성인 상담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치료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0) N.K. Schlossberg.,(1990) Training counselors to work with older adults. Generations, XIV,p7

<표4-3> 시술 전 연령에 따른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비교

| 문 항                                         | 만 65~75세<br>(n=13)     | 만 71~75세<br>(n=12)      | 만 76~80세<br>(n=11)      | 만 81세 이상<br>(n=14)     | p-value             |
|---------------------------------------------|------------------------|-------------------------|-------------------------|------------------------|---------------------|
| 나도 다른 사람<br>만큼 가치 있는<br>사람이라고 생<br>각 하지 않는다 | 2.54±0.88              | 2.50±1.00               | 2.82±0.87               | 2.57±0.85              | 0.833               |
| 나는 단점을<br>많이 가지고<br>있다고 생각<br>한다            | 2.77±0.83              | 2.50±0.91               | 2.45±0.52               | 2.79±0.80              | 0.612               |
| 대체적으로<br>내가 실패자<br>라고 느끼는<br>경향이 있다         | 2.31±1.03              | 2.58±1.31               | 2.64±0.81               | 3.07±1.21              | 0.363               |
| 나는 남들이<br>하는 만큼은<br>일을 할 수<br>없을 것 같다       | 1.62±0.65 <sup>a</sup> | 2.00±0.74 <sup>ab</sup> | 2.55±1.04 <sup>bc</sup> | 3.14±1.46 <sup>c</sup> | 0.003 <sup>**</sup> |
| 나는 자랑할<br>것이 별로 없다                          | 3.31±0.75 <sup>a</sup> | 3.25±0.87 <sup>a</sup>  | 3.82±0.75 <sup>ab</sup> | 4.29±0.47 <sup>b</sup> | 0.001 <sup>**</sup> |
| 나는 나 자신에<br>대해 부정적인<br>태도를 지니고<br>있다        | 2.38±0.51              | 3.00±1.35               | 2.55±0.52               | 2.93±1.00              | 0.278               |
| 대체적으로 나<br>자신에 만족<br>하지 못 한다                | 2.23±0.44              | 3.25±1.36               | 3.00±0.78               | 2.86±1.23              | 0.094               |
| 나 자신을 좀<br>더 존중할 수<br>있으면 하고<br>바란다         | 3.77±0.73              | 3.75±0.97               | 3.82±0.60               | 3.57±0.85              | 0.870               |

(표 계속)

| 문 항                                | 만 65~75세<br>(n=13)            | 만 71~75세<br>(n=12)            | 만 76~80세<br>(n=11)            | 만 81세 이상<br>(n=14)            | p-value                   |
|------------------------------------|-------------------------------|-------------------------------|-------------------------------|-------------------------------|---------------------------|
| 때때로 나 자신<br>이 쓸모없는<br>사람이라고<br>느낀다 | 2.00±0.91 <sup>a</sup>        | 3.17±1.19 <sup>b</sup>        | 2.64±1.03 <sup>ab</sup>       | 3.57±0.94 <sup>bc</sup>       | 0.002 <sup>**</sup>       |
| 때때로 내가<br>전혀 유능하지<br>않다고 생각<br>한다  | 2.46±0.97 <sup>a</sup>        | 3.08±1.31 <sup>a</sup>        | 2.82±1.17 <sup>a</sup>        | 4.07±0.83 <sup>b</sup>        | 0.002 <sup>**</sup>       |
| <b>총 점 수</b>                       | <b>25.38±4.23<sup>a</sup></b> | <b>29.08±6.32<sup>b</sup></b> | <b>29.09±2.21<sup>b</sup></b> | <b>32.86±3.30<sup>c</sup></b> | <b>0.001<sup>**</sup></b> |

1) : Mean±S.D. \*\*P<.01

a,b,c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 at p<0.05 by ANOVA

#### 4) 시설 전 동거상태에 따른 대상자들의 우울감 비교

동거상태에 따라서 우울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4>와 같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떠올라 괴롭다, 밖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라는 질문에서 동거상태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P<.01). 즉 배우자를 포함한 가족과 함께 사는 노인 보다는 혼자 살수록 우울감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영란<sup>71)</sup>에 의하면 일반노인, 시설노인, 독거노인 중 독거노인이 우울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71) 김영란(2002) 일반노인 시설노인 독거노인의 우울감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63

<표4-4> 시술 전 동거상태에 따른 대상자들의 우울감 비교

| 문항                                        | 배우자<br>(n=10)            | 기혼자녀<br>(n=9)          | 미혼자녀<br>(n=9)           | 독거<br>(n=19)            | 기타<br>(n=3)             | p-value             |
|-------------------------------------------|--------------------------|------------------------|-------------------------|-------------------------|-------------------------|---------------------|
| 쓸데없는<br>생각들이<br>떠올라<br>괴롭다                | 2.90±1.10 <sup>a</sup>   | 2.78±1.09 <sup>a</sup> | 2.22±0.97 <sup>a</sup>  | 3.37±1.30 <sup>ab</sup> | 4.33±0.58 <sup>b</sup>  | 0.046 <sup>*</sup>  |
| 밖에 나<br>가기 보<br>다는 주<br>로 집에<br>있으려<br>한다 | 2.10±1.20 <sup>abc</sup> | 2.67±1.32 <sup>b</sup> | 1.67±1.00 <sup>ac</sup> | 3.37±1.50 <sup>b</sup>  | 1.00±0.00 <sup>ac</sup> | 0.005 <sup>**</sup> |
| 나는 오<br>래 오래<br>살고 싶<br>고 싶지<br>않다        | 2.80±1.23                | 2.22±0.44              | 2.89±1.62               | 3.58±1.47               | 4.00±1.73               | 0.098               |
| 앞날에<br>대해 걱<br>정 을 할<br>때가 많다             | 3.80±1.23                | 4.11±1.05              | 4.13±0.99               | 4.11±0.99               | 5.00±0.00               | 0.545               |
| 지금 내<br>가 살아<br>있다는<br>것이 기<br>쁘지 않다      | 2.70±1.06                | 2.78±0.97              | 2.11±0.78               | 2.42±0.77               | 2.00±0.00               | 0.368               |
| 전보다<br>내 모습<br>이 추해<br>졌다고<br>생각한다        | 3.60±1.27                | 3.78±1.20              | 3.67±1.12               | 3.89±1.20               | 4.33±1.16               | 0.891               |
| 나는 늘<br>즐겁고<br>행복하<br>지 않다                | 2.20±0.42                | 2.44±0.53              | 2.56±0.53               | 2.53±1.02               | 2.33±0.58               | 0.818               |

(표 계속)

| 문 항                                                         | 배우자<br>(n=10) | 기혼자녀<br>(n=9) | 미혼자녀<br>(n=9) | 독거<br>(n=19) | 기타<br>(n=3) | p-value |
|-------------------------------------------------------------|---------------|---------------|---------------|--------------|-------------|---------|
| 앞으로<br>내 주위<br>에 재미<br>있고 즐<br>거운 일<br>이 많이<br>생길 것<br>같지않다 | 2.70±1.42     | 2.78±1.09     | 2.33±0.50     | 2.68±1.16    | 3.00±1.73   | 0.893   |
| 앞날에<br>대해 희<br>망 적으<br>로 느끼<br>지못한다                         | 3.00±1.16     | 2.67±1.00     | 2.44±1.04     | 2.84±1.39    | 3.00±1.73   | 0.877   |
| 인생은<br>즐거운<br>것이 아<br>니다                                    | 1.80±0.63     | 2.33±0.71     | 2.11±0.93     | 2.53±1.07    | 1.33±0.58   | 0.124   |
| 나는 가<br>치 있는<br>일을 더<br>이상 할<br>수 없을<br>것 같다                | 3.70±1.06     | 3.44±1.24     | 4.00±1.00     | 3.89±1.24    | 4.33±0.58   | 0.737   |
| 나쁜 일<br>이 일어<br>나지 않<br>을까 두<br>렵다                          | 3.00±1.05     | 2.44±0.89     | 2.78±1.20     | 3.50±0.92    | 2.67±1.53   | 0.130   |
| 농담을<br>들어도<br>재미가<br>없다                                     | 2.50±0.97     | 2.11±1.17     | 2.11±0.93     | 2.79±0.98    | 3.00±1.00   | 0.302   |

(표 계속)

| 문 항                                                | 배우자<br>(n=10)                  | 기혼자녀<br>(n=9)                  | 미혼자녀<br>(n=9)                 | 독거<br>(n=19)                  | 기타<br>(n=3)                    | p-value                  |
|----------------------------------------------------|--------------------------------|--------------------------------|-------------------------------|-------------------------------|--------------------------------|--------------------------|
| 기분이<br>좋지 않<br>은편이다                                | 2.60±0.70                      | 2.44±0.53                      | 2.56±0.53                     | 2.42±0.84                     | 2.33±0.58                      | 0.952                    |
| 내가 죽<br>어야 다<br>른 사 람<br>들 특히<br>가족이<br>편할 것<br>같다 | 2.80±1.40                      | 2.11±1.36                      | 2.56±1.13                     | 3.42±1.35                     | 3.67±2.31                      | 0.148                    |
| <b>총 점수</b>                                        | <b>42.20±5.43<sup>ab</sup></b> | <b>41.11±5.49<sup>ab</sup></b> | <b>39.38±7.46<sup>a</sup></b> | <b>47.56±7.64<sup>b</sup></b> | <b>46.33±5.03<sup>ab</sup></b> | <b>0.033<sup>*</sup></b> |

<sup>1)</sup> : Mean±S.D. \*P<.05, \*\*P<.01

<sup>a,b,c</sup>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 at p<0.05 by ANOVA

##### 5) 시술 전 동거상태에 따른 대상자들의 자아 존중감 비교

동거상태에 따라서 자아 존중감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 <표 4-5>와 같다. 대체적으로 내가 실패자 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라고 느낀다는 항목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5, P<.01). 이러한 결과는 우울감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독거노인의 경우가 더욱 자아 존중감이 낮다는 사실이다. 문인숙(1995)<sup>72)</sup>의 경우도 노인복지의 영역에서 가족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가족이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자원봉사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보다 많은 상담과 사랑의 실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72) 문인숙(1995) 『노인복지의 이해』, 서울, 홍익재, p 82

<표4-5> 시술 전 동거상태에 따른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비교

| 문 항                                | 배우자<br>(n=10)           | 기혼자녀<br>(n=9)          | 미혼자녀<br>(n=9)           | 독거<br>(n=19)            | 기타<br>(n=3)            | p-value             |
|------------------------------------|-------------------------|------------------------|-------------------------|-------------------------|------------------------|---------------------|
| 나도 다른 사람 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 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 2.60±1.08               | 2.44±0.53              | 2.67±0.50               | 2.63±1.12               | 2.67±0.58              | 0.986               |
| 나는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3.10±1.10               | 2.33±0.50              | 2.44±0.53               | 2.68±0.75               | 2.33±0.58              | 0.197               |
| 대체적으로 내가 실패자 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2.10±0.88 <sup>ab</sup> | 1.67±0.87 <sup>a</sup> | 3.22±1.20 <sup>c</sup>  | 3.00±0.88 <sup>bc</sup> | 3.67±1.16 <sup>c</sup> | 0.001 <sup>**</sup> |
|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 1.70±0.82               | 1.78±0.67              | 2.56±1.24               | 2.89±1.33               | 2.00±0.00              | 0.035               |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3.20±1.03 <sup>a</sup>  | 3.22±0.83 <sup>a</sup> | 3.78±0.44 <sup>ab</sup> | 4.00±0.67 <sup>ab</sup> | 4.33±0.58 <sup>b</sup> | 0.018 <sup>*</sup>  |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2.60±1.08               | 2.56±0.53              | 3.00±0.87               | 2.74±1.10               | 2.67±0.58              | 0.874               |
|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한다               | 2.50±0.97               | 2.22±0.44              | 3.00±0.87               | 3.00±1.16               | 4.00±1.73              | 0.076               |
|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3.60±0.84               | 3.89±0.93              | 3.89±0.60               | 3.63±0.76               | 3.67±1.16              | 0.868               |

(표 계속)

| 문 항                                 | 배우자<br>(n=10)                  | 기혼자녀<br>(n=9)                 | 미혼자녀<br>(n=9)                  | 독거<br>(n=19)                  | 기타<br>(n=3)                   | p-value                   |
|-------------------------------------|--------------------------------|-------------------------------|--------------------------------|-------------------------------|-------------------------------|---------------------------|
| 때때로 나<br>자신이 쓸모<br>없는 사람이<br>라고 느낀다 | 1.90±0.74 <sup>a</sup>         | 2.44±1.24 <sup>ab</sup>       | 3.11±0.93 <sup>b</sup>         | 3.37±1.12 <sup>b</sup>        | 3.33±1.16 <sup>b</sup>        | 0.009 <sup>**</sup>       |
| 때때로 내가<br>전혀 유능<br>하지 않다고<br>생각한다   | 2.70±1.25                      | 2.67±1.12                     | 2.78±1.09                      | 3.74±1.15                     | 3.33±1.16                     | 0.078                     |
| <b>총 점수</b>                         | <b>26.00±6.24<sup>ab</sup></b> | <b>25.22±3.67<sup>a</sup></b> | <b>30.44±3.91<sup>bc</sup></b> | <b>31.68±3.56<sup>c</sup></b> | <b>32.00±2.65<sup>c</sup></b> | <b>0.001<sup>**</sup></b> |

1) : Mean±S.D. \*P<.05, \*\*P<.01

a,b,c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 at p<0.05 by ANOVA

## 2. 미용서비스의 이용실태 결과

대상자들의 미용서비스 이용실태에 관한 결과는 <표4-2>와 같다. 외모를 의식하냐는 질문에 대상자의 24명(48.0%)이 보통이다라고 답했으며, 의식한다와 의식하지 않는다는 각각 13명(26.0%)이었다. 외모 만족 정도에는 28명(56.0%)이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답하였으며, 염색군이 다른 군에 비해 보통이다라도 답한 경우가 많았다. 김보경<sup>73)</sup>의 연구에 의하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는가하는 항목에서 만족하지 못한다가 39.8%로 가장 높아 본 연구와 일치함을 보였다. 노인의 특성상 노화로 인한 흰머리, 주름, 검버섯 등 외모가 변해가면서 만족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고 염색군의 경우 흰머리를 감춤으로써 다른 시술군 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미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보통 이다가 전체 대상자의 34명(68.0%)으로 조사되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용 서비스는 커트가 52.0%로 가장 높아 김호정<sup>74)</sup>의 연구에서와 같이 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커트(69.7%)로 과반수

73) 김보경(2008) 자가미용교육 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p 39

74) 김호정(2006) 실버세대의 미용실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논문 p 40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커트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로 대답하였다. 커트 다음으로는 염색(24.0%), 펌(18.0%)의 순이었다. 커트를 하는 간격은 두 달에 1번이 47.9%로 가장 높았고, 펌 간격도 두 달에 1번이 33.3%, 염색 간격은 한 달에 1번이 31.3%로 조사되었다. 머리를 하는 목적의 질문엔 24명(48.0%)이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라고 답하였으며, 14명(28.0%)이 젊어 보이기 위해라고 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남에게 단정하고 젊어 보이고 싶어 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는 나이가 들어도 변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받고 싶은 서비스 종류에서는 평소 쉽게 받을 수 있는 커트, 펌, 염색을 제외하고 피부 관리가 36.0%로 가장 높았으며, 손·발 마사지를 받고 싶다는 경우도 20.0%에 달하였다. 설문에 응한 응답자의 대부분은 직접인터뷰를 통해 이야기한 결과 대부분 복지시설에서 자원봉사자에게 미용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미용서비스 중에서도 헤어스타일 외에 시술하는 서비스가 없어 흔히 받지 못하는 피부 관리가 받고 싶은 서비스로 높게 나타났다.

각 군의 외모 의식정도에 대한 결과는 미용서비스 관심정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스 종류, 커트 간격, 펌 간격, 머리를 하는 목적, 받고 싶은 서비스 종류는 각 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표4-6>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 문 항                 | 대조군<br>(n=10)          | 커트군<br>(n=10) | 펌군<br>(n=10) | 염색군<br>(n=10) | 복합<br>시술군<br>(n=10) | 전체<br>(n=50) | p-value |
|---------------------|------------------------|---------------|--------------|---------------|---------------------|--------------|---------|
| <b>외모 의식<br/>정도</b> |                        |               |              |               |                     |              |         |
| 의식 한다               | 2 (20.0) <sup>1)</sup> | 1 (10.0)      | 2 (20.0)     | 3 (30.0)      | 5 (50.0)            | 13<br>(26.0) | 0.093   |
| 보통 이다               | 6 (60.0)               | 3 (30.0)      | 5 (50.0)     | 7 (70.0)      | 3 (30.0)            | 24<br>(48.0) |         |
| 만족하지<br>않는다         | 2 (20.0)               | 6 (60.0)      | 3 (30.0)     | 0 ( 0.0)      | 2 (20.0)            | 13<br>(26.0) |         |

(표 계속)

| 문항                                | 대조군<br>(n=10) | 커트군<br>(n=10) | 펌군<br>(n=10) | 염색군<br>(n=10) | 복합<br>시술군<br>(n=10) | 전체<br>(n=50) | p-value |
|-----------------------------------|---------------|---------------|--------------|---------------|---------------------|--------------|---------|
| <b>외모 만족<br/>정도</b>               |               |               |              |               |                     |              |         |
| 만족 한다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0.026*  |
| 보통이다                              | 4 (40.0)      | 2 (20.0)      | 2 (20.0)     | 8 (80.0)      | 6 (60.0)            | 22 (44.0)    |         |
| 만족하지<br>않는다                       | 6 (60.0)      | 8 (80.0)      | 8 (80.0)     | 2 (20.0)      | 4 (40.0)            | 28 (56.0)    |         |
| <b>미용서비스<br/>관심 정도</b>            |               |               |              |               |                     |              |         |
| 매우 많음                             | 0 ( 0.0)      | 1 (10.0)      | 1 (10.0)     | 2 (20.0)      | 2 (20.0)            | 6 (12.0)     | 0.540   |
| 약간 있음                             | 3 (30.0)      | 1 (10.0)      | 5 (50.0)     | 4 (40.0)      | 4 (40.0)            | 17 (34.0)    |         |
| 보통                                | 4 (40.0)      | 2 (20.0)      | 1 (10.0)     | 3 (30.0)      | 1 (10.0)            | 11 (22.0)    |         |
| 별로 없음                             | 3 (30.0)      | 5 (50.0)      | 3 (30.0)     | 1 (10.0)      | 3 (30.0)            | 15 (30.0)    |         |
| 전혀 없음                             | 0 ( 0.0)      | 1 (10.0)      | 0 ( 0.0)     | 0 ( 0.0)      | 0 ( 0.0)            | 1 ( 2.0)     |         |
| <b>가장 많이 이<br/>용하는 미용<br/>서비스</b> |               |               |              |               |                     |              |         |
| 커트                                | 5 (50.0)      | 8 (80.0)      | 4 (40.0)     | 5 (50.0)      | 4 (40.0)            | 26 (52.0)    | 0.306   |
| 펌                                 | 2 (20.0)      | 0 ( 0.0)      | 2 (20.0)     | 2 (20.0)      | 3 (30.0)            | 9 (18.0)     |         |
| 염색                                | 2 (20.0)      | 0 ( 0.0)      | 4 (40.0)     | 3 (30.0)      | 3 (30.0)            | 12 (24.0)    |         |
| 전혀하지않음                            | 1 (10.0)      | 2 (20.0)      | 0 ( 0.0)     | 0 ( 0.0)      | 0 ( 0.0)            | 3 ( 6.0)     |         |

(표 계속)

| 문 항             | 대조군<br>(n=10) | 커트군<br>(n=10) | 펌군<br>(n=10) | 염색군<br>(n=10) | 복합<br>시술군<br>(n=10) | 전체<br>(n=50) | p-value |
|-----------------|---------------|---------------|--------------|---------------|---------------------|--------------|---------|
| 커트 간격           |               |               |              |               |                     |              |         |
| 2~3주에1번         | 0 ( 0.0)      | 0 ( 0.0)      | 0 ( 0.0)     | 1 (10.0)      | 2 (20.0)            | 3 (6.3)      | 0.409   |
| 한 달에 1번         | 2 (22.2)      | 5 (55.6)      | 3 (30.0)     | 4 (40.0)      | 1 (10.0)            | 15<br>(31.3) |         |
| 두 달에 1번         | 4 (44.4)      | 3 (33.3)      | 6 (60.0)     | 4 (40.0)      | 6 (60.0)            | 23<br>(47.9) |         |
| 불규칙적으로          | 3 (33.3)      | 1 (11.1)      | 1 (10.0)     | 1 (10.0)      | 1 (10.0)            | 7 (14.6)     |         |
| 펌 간격            |               |               |              |               |                     |              |         |
| 한 달에 1번         | 0 ( 0.0)      | 0 ( 0.0)      | 1 (10.0)     | 1 (10.0)      | 1 (10.0)            | 3 (6.3)      | 0.454   |
| 두 달에 1번         | 3 (33.3)      | 3 (33.3)      | 4 (40.0)     | 4 (40.0)      | 2 (20.0)            | 16<br>(33.3) |         |
| 불규칙적으로          | 1 (11.1)      | 1 (11.1)      | 4 (40.0)     | 2 (20.0)      | 5 (50.0)            | 13<br>(27.1) |         |
| 하지 않는다          | 5 (55.6)      | 5 (55.6)      | 1 (10.0)     | 3 (30.0)      | 2 (20.0)            | 16<br>(33.3) |         |
| 염색 간격           |               |               |              |               |                     |              |         |
| 한 달에 1번         | 2 (22.2)      | 0 ( 0.0)      | 4 (40.0)     | 5 (50.0)      | 4 (40.0)            | 15<br>(31.3) | 0.011*  |
| 두 달에 1번         | 0 ( 0.0)      | 2 (22.2)      | 2 (20.0)     | 0 ( 0.0)      | 0 ( 0.0)            | 4 ( 8.3)     |         |
| 불규칙적<br>으로      | 3 (33.3)      | 0 ( 0.0)      | 1 (10.0)     | 4 (40.0)      | 5 (50.0)            | 13<br>(27.1) |         |
| 하지 않는다          | 4 (44.4)      | 7 (77.8)      | 3 (30.0)     | 1 (10.0)      | 1 (10.0)            | 16<br>(33.3) |         |
| 머리를 하는<br>목적    |               |               |              |               |                     |              |         |
| 짧어 보이기<br>위해    | 3 (30.0)      | 0 ( 0.0)      | 3 (30.0)     | 4 (40.0)      | 4 (40.0)            | 14<br>(28.0) | 0.525   |
| 단정하게<br>보이기 위해  | 6 (60.0)      | 6 (60.0)      | 3 (30.0)     | 4 (40.0)      | 5 (50.0)            | 24<br>(48.0) |         |
| 좋은 인상을<br>주기 위해 | 0 ( 0.0)      | 3 (30.0)      | 3 (30.0)     | 2 (20.0)      | 1 (10.0)            | 9 (18.0)     |         |
| 기타              | 1 (10.0)      | 1 (10.0)      | 1 (10.0)     | 0 ( 0.0)      | 0 ( 0.0)            | 3 ( 6.0)     |         |

(표 계속)

| 문항                 | 대조군<br>(n=10) | 커트군<br>(n=10) | 핼군<br>(n=10) | 염색군<br>(n=10) | 복합<br>시술군<br>(n=10) | 전체<br>(n=50) | p-value |
|--------------------|---------------|---------------|--------------|---------------|---------------------|--------------|---------|
| <b>받고싶은 서비스 종류</b> |               |               |              |               |                     |              |         |
| 커트                 | 0 ( 0.0)      | 0 ( 0.0)      | 0 ( 0.0)     | 0 ( 0.0)      | 1 ( 4.2)            | 1 ( 2.0)     | 0.584   |
| 핼                  | 2 (13.3)      | 1 ( 8.3)      | 1 ( 5.6)     | 0 ( 0.0)      | 2 ( 8.3)            | 5 (10.0)     |         |
| 염색                 | 0 ( 0.0)      | 1 ( 8.3)      | 1 ( 5.6)     | 0 ( 0.0)      | 2 ( 8.3)            | 2 ( 4.0)     |         |
| 피부 관리              | 1 ( 6.7)      | 1 ( 8.3)      | 5 (27.8)     | 6 (27.3)      | 6 (25.0)            | 18 (36.0)    |         |
| 손, 발 마사지           | 5 (33.3)      | 2 (16.7)      | 6 (33.3)     | 8 (36.4)      | 5 (20.8)            | 10 (20.0)    |         |
| 화장이나<br>매니큐어       | 3 (20.0)      | 1 ( 8.3)      | 3 (16.7)     | 6 (27.3)      | 5 (20.8)            | 2 ( 4.0)     |         |
| 기타                 | 4 (26.7)      | 6 (50.0)      | 2 (11.1)     | 2 (9.1)       | 3 (12.5)            | 12 (24.0)    |         |

<sup>1)</sup> : n(%), p-value measured by  $\chi^2$ -test \*P<.05, \*\*P<.01

### 3. 각 시술군의 시술 전 우울감 비교

시술 전 대조군, 커트군, 핼군, 염색군, 복합시술군의 우울감에 대한 점수를 비교한 결과는 <표4-7>에 제시하였다. 전보다 내 모습이 추해졌다고 생각 한다는 문항에 대조군  $4.40 \pm 0.52$ , 커트군  $3.60 \pm 1.35$ , 핼군  $3.80 \pm 1.55$ , 염색군  $3.40 \pm 0.97$ , 복합 시술군  $3.80 \pm 1.14$ ,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 에는 대조군  $3.60 \pm 1.27$ , 커트군  $4.00 \pm 0.94$ , 핼군  $4.10 \pm 1.295$ , 염색군  $3.50 \pm 1.08$ , 복합 시술군  $3.90 \pm 1.10$ 으로 다른 질문들에 비해 더욱 부정적으로 답하여 노화로 인한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에서의 역할상실로 인해 자신이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할 거라는 노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커트군과 복합시술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여(P<.05) 다른 시술군에 비해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날에 대해 걱정을 할 때가 많다라는 질문에 대조군  $3.56 \pm 1.01$ , 커트군  $4.70 \pm 0.68$ , 핼군

3.90±1.20, 염색군 4.00±1.25, 복합시술군 4.30±0.68으로 각 시술군 모두 앞날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표4-7> 각 시술군의 시술 전 우울감

| 문항                                  | 대조군<br>(n=10)           | 커트군<br>(n=10) | 파마군<br>(n=10) | 염색군<br>(n=10) | 복합<br>시술군<br>(n=10) | p-value |
|-------------------------------------|-------------------------|---------------|---------------|---------------|---------------------|---------|
| 쓸데없는<br>생각들이<br>떠올라<br>괴롭다          | 3.10±0.99 <sup>1)</sup> | 3.30±1.64     | 3.10±1.20     | 3.10±1.20     | 2.50±1.08           | 0.666   |
| 밖에 나<br>가기보다<br>는주로<br>집에있으<br>려 한다 | 3.30±1.25               | 2.60±1.90     | 2.20±0.92     | 2.60±1.58     | 2.00±1.41           | 0.332   |
| 나는오래<br>오래살고<br>싶지않다                | 2.90±1.20               | 3.40±1.71     | 3.50±1.35     | 2.70±1.25     | 2.90±1.52           | 0.661   |
| 앞날에<br>대해걱정<br>을할때가<br>많다           | 3.56±1.01               | 4.70±0.68     | 3.90±1.20     | 4.00±1.25     | 4.30±0.68           | 0.142   |
| 지금내가<br>살아있다<br>는것이기<br>쁘지않다        | 2.60±0.52               | 2.10±0.32     | 2.80±1.32     | 2.70±0.95     | 2.10±0.74           | 0.192   |
| 전보다<br>내모습이<br>추해졌다<br>고 생각<br>한다   | 4.40±0.52               | 3.60±1.35     | 3.80±1.55     | 3.40±0.97     | 3.80±1.14           | 0.396   |

(표 계속)

| 문항                                                    | 대조군<br>(n=10)          | 커트군<br>(n=10)          | 펄군<br>(n=10)            | 염색군<br>(n=10)            | 복합<br>시술군<br>(n=10)     | p-value            |
|-------------------------------------------------------|------------------------|------------------------|-------------------------|--------------------------|-------------------------|--------------------|
| 나는 늘<br>즐겁고 행<br>복하지<br>않다                            | 2.70±0.95              | 2.50±0.97              | 2.50±0.53               | 2.20±0.42                | 2.30±0.68               | 0.603              |
| 앞으로 내<br>주위에<br>재미있고<br>즐거운<br>일이 많이<br>생길 것<br>같지 않다 | 2.70±0.95              | 2.80±1.55              | 2.50±1.08               | 2.50±1.18                | 2.80±0.92               | 0.952              |
| 앞날에<br>대해 희망<br>적으로<br>느끼지<br>못한다                     | 2.50±0.97              | 3.30±1.49              | 2.20±0.42               | 2.90±1.20                | 3.00±1.49               | 0.272              |
| 인생은<br>즐거운<br>것이<br>아니다                               | 2.80±0.92 <sup>a</sup> | 1.60±0.70 <sup>b</sup> | 2.60±0.70 <sup>ac</sup> | 2.10±1.10 <sup>abc</sup> | 1.90±0.74 <sup>bc</sup> | 0.016 <sup>*</sup> |
| 나는 가치<br>있는 일을<br>더 이상<br>할 수 없을<br>것 같다              | 3.60±1.27              | 4.00±0.94              | 4.10±1.29               | 3.50±1.08                | 3.90±1.10               | 0.726              |
| 나쁜 일이<br>일어나지<br>않을까<br>두렵다                           | 3.44±0.88              | 2.90±1.20              | 3.00±0.94               | 2.60±1.27                | 3.20±1.03               | 0.513              |

(표 계속)

| 문 항                                         | 대조군<br>(n=10) | 커트군<br>(n=10) | 펄군<br>(n=10) | 염색군<br>(n=10) | 복합<br>시술군<br>(n=10) | p-value |
|---------------------------------------------|---------------|---------------|--------------|---------------|---------------------|---------|
| 농담을<br>들어도<br>재미가<br>없다                     | 2.60±0.70     | 2.50±0.97     | 2.70±1.16    | 2.40±1.08     | 2.30±1.25           | 0.922   |
| 기분이<br>좋지않은<br>편이다                          | 2.70±0.95     | 2.50±0.53     | 2.20±0.63    | 2.60±0.52     | 2.40±0.70           | 0.536   |
| 내가죽어<br>야 다른<br>사람들<br>특히가족<br>이 편할<br>것 같다 | 3.40±1.27     | 3.70±1.57     | 2.70±1.16    | 2.30±1.42     | 2.50±1.43           | 0.125   |
| 총 점수                                        | 46.75±5.83    | 45.50±9.97    | 43.80±5.61   | 41.60±6.20    | 41.90±7.56          | 0.493   |

<sup>1)</sup> : Mean±S.D. \*P<.05, \*\*P<.01

<sup>a,b,c</sup> :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 at p<0.05 by ANOVA

#### 4. 각 시술군의 시술 전 자아 존중감 비교

시술 전 대상자들의 자아 존중감의 동질성 검증 결과는 <표4-8>와 같다.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에 대조군 3.90±0.74, 커트군 4.00±0.82, 펄군 3.60±0.84, 염색군 3.30±0.82, 복합시술군 3.60±0.84 으로 다른 문항에 비해 더욱 부정적으로 답하여 사회에서의 역할 상실에 의한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는 대조군 3.40±0.52, 커트군 3.70±0.95, 펄군 4.10±0.57, 염색군 3.50±0.71, 복합시술군 3.90±0.99 으로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에 부정

적인 반면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질문에 대조군  $2.60 \pm 0.97$ , 커트군  $2.80 \pm 1.23$ , 평균  $2.40 \pm 0.52$ , 염색군  $3.00 \pm 1.16$ , 복합시술군  $3.30 \pm 1.25$ 으로 자신에 대한 만족도의 질문에 보통이다 라고 나타났다. 자아 존중감에 대한 총 점수는 대조군  $30.70 \pm 2.98$ , 커트군  $31.30 \pm 4.17$ , 평균  $26.80 \pm 5.87$ , 염색군  $28.60 \pm 4.72$ , 복합시술군  $28.50 \pm 6.17$ 이었으며 모든 문항에서 각 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4-8> 각 시술군의 시술 전 자아존중감 비교

| 문 항                                   | 대조군<br>(n=10)        | 커트군<br>(n=10)   | 파마군<br>(n=10)   | 염 색 군<br>(n=10) | 복합시<br>술군<br>(n=10) | p-value |
|---------------------------------------|----------------------|-----------------|-----------------|-----------------|---------------------|---------|
| 나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br>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br>않는다 | $2.20 \pm 0.42^{1)}$ | $2.70 \pm 0.95$ | $2.90 \pm 0.29$ | $2.70 \pm 0.95$ | $2.50 \pm 0.53$     | 0.475   |
| 나는 단점을 많이 가지고<br>있다고 생각 한다            | $2.70 \pm 0.48$      | $2.60 \pm 0.97$ | $2.30 \pm 0.95$ | $3.00 \pm 0.82$ | $2.60 \pm 0.52$     | 0.392   |
| 대체적으로 내가 실패자<br>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3.20 \pm 0.79$      | $3.10 \pm 0.20$ | $2.40 \pm 0.08$ | $2.50 \pm 0.27$ | $2.10 \pm 0.99$     | 0.124   |
|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br>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 $3.10 \pm 0.37$      | $2.60 \pm 0.35$ | $2.10 \pm 0.29$ | $2.00 \pm 0.47$ | $1.90 \pm 0.88$     | 0.112   |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br>없다                    | $3.90 \pm 0.74$      | $4.00 \pm 0.82$ | $3.60 \pm 0.84$ | $3.30 \pm 0.82$ | $3.60 \pm 0.84$     | 0.340   |
| 나는 나 자신에 대해<br>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br>있다     | $2.60 \pm 0.52$      | $3.00 \pm 0.16$ | $2.20 \pm 0.63$ | $2.60 \pm 0.97$ | $3.20 \pm 0.03$     | 0.127   |
|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 만족<br>하지 못한다              | $2.60 \pm 0.97$      | $2.80 \pm 0.23$ | $2.40 \pm 0.52$ | $3.00 \pm 0.16$ | $3.30 \pm 0.25$     | 0.374   |
|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br>있으면 하고 바란다         | $3.40 \pm 0.52$      | $3.70 \pm 0.95$ | $4.10 \pm 0.57$ | $3.50 \pm 0.71$ | $3.90 \pm 0.99$     | 0.257   |

(표 계속)

| 문 항                         | 대조군<br>(n=10)          | 커트군<br>(n=10)          | 파마군<br>(n=10)          | 염색군<br>(n=10)          | 복합시<br>술군<br>(n=10)    | p-value           |
|-----------------------------|------------------------|------------------------|------------------------|------------------------|------------------------|-------------------|
|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br>사람이라고 느낀다 | 3.30±0.<br>82          | 3.20±1.<br>03          | 2.40±1.<br>17          | 2.80±1.<br>13          | 2.60±1.<br>43          | 0.364             |
|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br>않다고 생각 한다 | 3.70±0.<br>95          | 3.60±1.<br>35          | 2.40±1.<br>27          | 3.20±0.<br>92          | 2.80±1.<br>23          | 0.081             |
| <b>총 점 수</b>                | <b>30.70±<br/>2.98</b> | <b>31.30±<br/>4.17</b> | <b>26.80±<br/>5.87</b> | <b>28.60±<br/>4.72</b> | <b>28.50±<br/>6.17</b> | <b>0.25<br/>9</b> |

<sup>1)</sup> : Mean±S.D.

## 5. 각 시술군의 시술 전·후의 우울감 변화량 비교

### 1) 커트 시술 전·후 우울감 변화

커트 군에서 시술 전과 후의 우울감의 변화를 <표4-9>에 나타내었다. 쓸데없는 생각들이 떠올라 괴롭다는 시술 전 3.30±1.64에서 시술 후 2.60±1.51로, 밖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는 시술 전 2.60±1.90, 시술 후 2.20±1.62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전보다 내 모습이 추해졌다고 생각 한다는 시술 전 3.60±1.35에서 시술 후 2.40±1.17로 우울감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09).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끼지 못한다는 질문에는 시술 전 3.30±1.49, 시술 후 2.20±0.79로 다른 질문들에 비해 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총 점수도 시술 전 45.50±9.97에서 시술 후 40.00±10.04로 감소하여, 커트를 실시한 결과 외모와 관련된 우울감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p=0.018)

<표4-9> 커트 시술 전·후 우울감 변화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쓸데없는 생각들이 떠올라 괴롭다      | 3.30±1.64 <sup>1)</sup> | 2.60±1.51 | 0.045   |
| 밖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 2.60±1.90               | 2.20±1.62 | 0.037*  |
|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고 싶지 않다    | 3.40±1.71               | 3.00±1.49 | 0.399   |
| 앞날에 대해 걱정을 할 때가 많다     | 4.70±0.68               | 4.40±0.70 | 0.081   |

(표 계속)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다               | 2.10±0.32         | 2.00±0.67          | 0.591         |
| 전보다 내 모습이 추해졌다고 생각 한다               | 3.60±1.35         | 2.40±1.17          | 0.009**       |
| 나는 늘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                    | 2.50±0.97         | 2.80±0.92          | 0.468         |
|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지 않다 | 2.80±1.55         | 2.00±0.67          | 0.153         |
|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끼지 못 한다               | 3.30±1.49         | 2.20±0.79          | 0.066         |
| 인생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 1.60±0.70         | 1.50±0.71          | 0.726         |
|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        | 4.00±0.94         | 3.80±1.23          | 0.168         |
|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 2.90±1.20         | 2.90±1.29          | 1.000         |
|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 2.50±0.97         | 2.30±0.92          | 0.081         |
| 기분이 좋지 않은 편이다                       | 2.50±0.53         | 2.30±0.48          | 0.443         |
|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이 편할 것 같다        | 3.70±1.25         | 3.70±1.25          | 1.000         |
| <b>총 점수</b>                         | <b>45.50±9.97</b> | <b>40.00±10.04</b> | <b>0.018*</b> |

1) : Mean±S.D. \*P&lt;.05, \*\*P&lt;.01

p-value measured by paired t-test

## 2) 펴름 시술 전·후 우울감 변화

펴름을 실시하기 전과 후의 우울감의 변화는 <표4-10>과 같다. 밖에 나가기도 하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는 시술 전 2.20±0.92에서 시술 후 1.70±0.95로 점수가 낮아져, 외형적인 변화로 인해 외출을 하는 두려움이 감소하였다(p=0.015). 또한,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고 싶지 않다는 시술 전·후 각각 3.50±1.35, 2.20±0.42로 나타났으며(p=0.013),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는 3.00±0.94에서 2.60±0.70으로 우울감 점수가 유의적으로 감소(p=0.037)하여 시술 전보다 시술 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모습을 볼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p= 0.000), 전

보다 내 모습이 추해졌다고 생각 한다( $p=0.002$ ),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p=0.001$ )의 항목에서도 우울감 정도가 감소하여 펴뮌 시술 후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긴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점수도 시술 전  $43.80\pm5.61$ 에서 시술 후  $35.90\pm4.77$ 로 감소하여, 펴뮌 시술이 우울감을 크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0$ ). 커트 시술에 비하여 펴뮌 시술이 우울감을 해소하는데 보다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커트 보다 펴뮌 시술이 시술 전과 후의 외모 변화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4-10> 펴뮌 시술 전·후 우울감 변화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쓸데없는 생각들이 떠올라 괴롭다                   | $3.10\pm1.20^{1)}$               | $2.80\pm1.14$                    | 0.193        |
| 밖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 $2.20\pm0.92$                    | $1.70\pm0.95$                    | 0.015        |
|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고 싶지 않다                 | $3.50\pm1.35$                    | $2.20\pm0.42$                    | 0.013        |
| 앞날에 대해 걱정을 할 때가 많다                  | $3.90\pm1.20$                    | $3.70\pm1.16$                    | 0.168        |
|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다               | $2.80\pm1.32$                    | $2.20\pm0.79$                    | 0.140        |
| 전보다 내 모습이 추해졌다고 생각 한다               | $3.80\pm1.55$                    | $1.70\pm0.68$                    | 0.002        |
| 나는 늘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                    | $2.50\pm0.53$                    | $2.80\pm0.42$                    | 0.193        |
|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지 않다 | $2.50\pm1.08$                    | $2.20\pm0.63$                    | 0.434        |
|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끼지 못 한다               | $2.20\pm0.42$                    | $2.50\pm0.71$                    | 0.279        |
| 인생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 $2.60\pm0.70$                    | $2.10\pm0.74$                    | 0.138        |
|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        | $4.10\pm1.29$                    | $3.30\pm1.06$                    | 0.000        |
|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 $3.00\pm0.94$                    | $2.60\pm0.70$                    | 0.037        |
|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 $2.70\pm1.16$                    | $2.00\pm0.94$                    | 0.001        |
| 기분이 좋지 않은 편이다                       | $2.20\pm0.63$                    | $1.80\pm0.42$                    | 0.104        |
|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이 편할 것 같다        | $2.70\pm1.16$                    | $2.30\pm0.95$                    | 0.104        |
| <b>총 점수</b>                         | <b><math>43.80\pm5.61</math></b> | <b><math>35.90\pm4.77</math></b> | <b>0.000</b> |

<sup>1)</sup> : Mean±S.D. \*P<.05, \*\*P<.01 \*\*\*P<.001

p-value measured by paired t-test

### 3) 염색 시술 전·후 우울감 변화

염색군의 시술 전과 후의 우울감 변화는 <표4-11>에 나타내었다.

기분이 좋지 않은 편이다는 시술 전  $2.60 \pm 0.52$ 에서 시술 후  $2.10 \pm 0.32$ 으로 점수가 감소하여, 시술 후 대상자들의 기분이 좋아졌다( $p=0.015$ ). 또한,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다는 시술 전  $2.70 \pm 0.95$ , 시술 후  $1.80 \pm 0.63$ , 전보다 내 모습이 추해졌다고 생각한다는 시술 전  $3.40 \pm 0.97$ , 시술 후  $1.90 \pm 1.20$ 로 흰머리를 염색하여 외형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질문에 대해서 눈에 띄게 점수가 감소하여 염색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우울감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끼지 못한다에 시술 전  $2.90 \pm 1.20$ , 시술 후  $1.80 \pm 0.79$ ,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에 시술 전  $2.40 \pm 1.08$ , 시술 후  $2.00 \pm 0.94$ 로 우울감 정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0.05$ ). 총 점수도  $41.60 \pm 6.20$ 에서  $34.40 \pm 6.28$ 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염색 시술이 우울감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0.001$ ).

<표4-11> 염색 시술 전·후 우울감 변화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쓸데없는 생각들이 떠올라 괴롭다                   | $3.10 \pm 1.20^{1)}$ | $2.80 \pm 1.32$ | 0.081   |
| 밖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 $2.60 \pm 1.58$      | $2.30 \pm 1.42$ | 0.081   |
|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고 싶지 않다                 | $2.70 \pm 1.25$      | $1.90 \pm 0.57$ | 0.070   |
| 앞날에 대해 걱정을 할 때가 많다                  | $4.00 \pm 1.25$      | $3.80 \pm 1.14$ | 0.168   |
|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다               | $2.70 \pm 0.95$      | $1.80 \pm 0.63$ | 0.019*  |
| 전보다 내 모습이 추해졌다고 생각 한다               | $3.40 \pm 0.97$      | $1.90 \pm 1.20$ | 0.026*  |
| 나는 늘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                    | $2.20 \pm 0.42$      | $2.50 \pm 0.53$ | 0.193   |
|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지 않다 | $2.50 \pm 1.18$      | $2.00 \pm 0.67$ | 0.213   |
|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끼지 못 한다               | $2.90 \pm 1.20$      | $1.80 \pm 0.79$ | 0.024*  |
| 인생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 $2.10 \pm 1.10$      | $2.00 \pm 0.67$ | 0.780   |
|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        | $3.50 \pm 1.08$      | $3.30 \pm 0.82$ | 0.509   |

(표 계속)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 2.60±1.27         | 2.20±1.23         | 0.269          |
|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 2.40±1.08         | 2.00±0.94         | 0.037*         |
| 기분이 좋지 않은 편이다                | 2.60±0.52         | 2.10±0.32         | 0.015*         |
|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이 편할 것 같다 | 2.30±1.42         | 2.00±1.05         | 0.193          |
| <b>총 점수</b>                  | <b>41.60±6.20</b> | <b>34.40±6.28</b> | <b>0.001**</b> |

<sup>1)</sup> : Mean±S.D. \*P<.05, \*\*P<.01

p-value measured by paired t-test

#### 4) 복합시술(커트+뿔+염색) 시술 전·후 우울감 변화

복합 시술 후 대상자의 우울감 변화는 <표4-12>에 나타내었다. 전보다 내 모습이 추해졌다고 생각한다가 시술 전 3.78±1.20에서 시술 후 1.78±0.97로 유의하게 감소하여(p<0.01), 시술 후 외모가 아름답게 변화됨을 인식하였고 그 결과는 외모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2.89±0.93에서 2.00±0.50로 감소하였는데(p<0.05) 이러한 결과는 외모에 대한 아름다움 관리로 인하여 자신감과 기대감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 <표4-12> 복합시술(커트+뿔+염색) 전·후 우울감 변화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쓸데없는 생각들이 떠올라 괴롭다      | 2.56±1.13 <sup>1)</sup> | 2.33±1.12 | 0.447   |
| 밖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 한다 | 2.11±1.45               | 2.11±1.45 | 1.000   |
|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고 싶지 않다    | 2.89±1.62               | 2.56±1.51 | 0.397   |
| 앞날에 대해 걱정을 할 때가 많다     | 4.33±0.71               | 4.44±0.53 | 0.681   |
|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다  | 2.00±0.71               | 1.89±0.78 | 0.594   |
| 전보다 내 모습이 추해졌다고 생각 한다  | 3.78±1.20               | 1.78±0.97 | 0.009** |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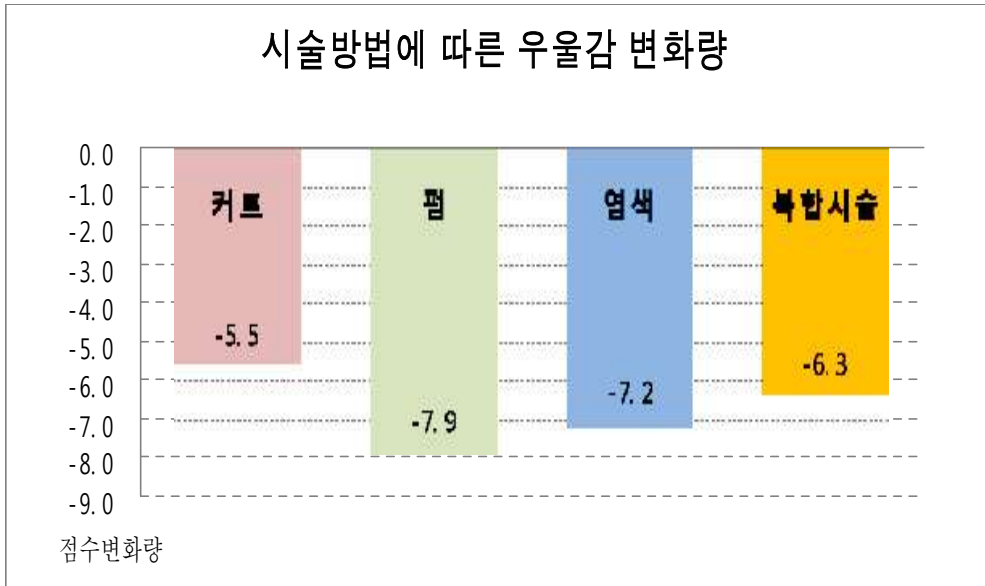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나는 늘 즐겁고 행복하지 않다                        | 2.22±0.67         | 2.67±0.50         | 0.225        |
| 앞으로 내 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br>이 많이 생길 것 같지 않다 | 2.89±0.93         | 2.00±0.50         | 0.021*       |
|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끼지 못<br>한다                | 3.00±1.58         | 2.22±0.67         | 0.133        |
| 인생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 2.00±0.71         | 2.00±0.71         | 1.000        |
|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br>을 것 같다        | 3.89±1.17         | 3.22±1.30         | 0.111        |
|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 3.33±1.00         | 2.33±1.12         | 0.067        |
|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 2.33±1.32         | 1.89±0.60         | 0.225        |
| 기분이 좋지 않은 편이다                           | 2.33±0.71         | 2.00±0.00         | 0.195        |
|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이<br>편할 것 같다         | 2.33±1.41         | 2.22±1.30         | 0.729        |
| <b>총 점수</b>                             | <b>42.00±8.02</b> | <b>35.67±7.70</b> | <b>0.072</b> |

<sup>1)</sup> : Mean±S.D. \*P<.05, \*\*P<.01

p-value measured by paired t-test

##### 5) 시술방법에 따른 우울감 변화

시술방법에 따른 우울감의 변화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4-1>과 같다. 커트군은 우울점수가 5.5점 감소하였으며, 펌군 7.9점, 염색군 7.2점, 복합시술군 6.3점이 감소하여 모든 군에서 우울감이 감소하였다. 복합시술군의 경우 한 번에 커트, 펌, 염색을 긴 시간동안 시술하여 지루함을 느껴 우울감의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진 못했지만 각 군의 우울감 변화량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4-1>시술방법에 따른 우울감 변화량

## 6. 각 시술군의 시술전·후의 자아존중감의 변화량

### 1) 커트 시술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

커트 시술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 변화는 <표4-13>과 같다. 커트 시술 후 각 문항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총 점수는  $31.30 \pm 4.17$ 에서  $29.60 \pm 3.34$ 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 < 0.05$ ).

<표4-13> 커트 시술 전·후의 자아존중감 변화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나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2.70 \pm 0.95^{1)}$ | $2.70 \pm 0.95$ | 1.000   |
| 나는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2.60 \pm 0.97$      | $2.80 \pm 0.92$ | 0.168   |
| 대체적으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3.10 \pm 1.20$      | $2.90 \pm 1.10$ | 0.168   |
|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 $2.60 \pm 1.35$      | $2.80 \pm 1.55$ | 0.555   |

(표 계속)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4.00±0.82         | 3.60±0.70         | 0.104         |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3.00±1.16         | 2.40±0.52         | 0.168         |
|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 한다       | 2.80±1.23         | 2.50±0.53         | 0.496         |
|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3.70±0.95         | 3.60±0.97         | 0.591         |
|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3.20±1.03         | 3.00±1.05         | 0.343         |
|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3.60±1.35         | 3.30±1.06         | 0.193         |
| <b>총 점수</b>                 | <b>31.30±4.17</b> | <b>29.60±3.34</b> | <b>0.025*</b> |

<sup>1)</sup> : Mean±S.D. \*P<.05, \*\*P<.01

p-value measured by paired t-test

## 2) 펴뮠 시술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

펴뮠 시술 전과 후의 자아존중감 점수 변화는 <표4-14>에 제시하였다.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가 시술 전 4.10±0.57, 시술 후 4.50±0.53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5).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의 문항에 시술 전 2.10±1.29, 시술 후 1.60±0.52, 나는 자랑 할 것이 별로 없다는 문항에 시술 전 3.60±0.84, 시술 후 3.10±0.88로 다른 문항에 비해 시술 후 점수가 눈에 띄게 증가 하였다. 자아존중감 총 점수는 26.80±5.87에서 24.70±5.31으로 유의하게 감소 하여 펴뮠이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을 증가시켜 주는 효과를 보였다(p<0.01).

<표4-14> 펴뮠 시술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나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 2.90±1.29 <sup>1)</sup> | 2.10±0.57 | 0.070   |
| 나는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 2.30±0.95               | 2.20±0.42 | 0.780   |
| 대체적으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2.40±1.08               | 2.30±1.06 | 0.591   |

(표 계속)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 2.10±1.29         | 1.60±0.52         | 0.138          |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3.60±0.84         | 3.10±0.88         | 0.052          |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2.20±0.63         | 2.30±0.68         | 0.343          |
|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 한다        | 2.40±0.52         | 2.30±0.68         | 0.678          |
|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4.10±0.57         | 4.50±0.53         | 0.037*         |
|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2.40±1.17         | 2.20±1.23         | 0.081          |
|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2.40±1.27         | 2.20±1.23         | 0.168          |
| <b>총 점수</b>                  | <b>26.80±5.87</b> | <b>24.70±5.31</b> | <b>0.005**</b> |

<sup>1)</sup> : Mean±S.D. \*P<.05, \*\*P<.01

p-value measured by paired t-test

### 3) 염색 시술 전·후 자아 존중감 변화

염색 전·후 대상자들의 자아존중감 변화는 <표4-15>과 같다.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는 문항에 시술 전 3.50±0.71, 시술 후 3.90±0.57로 점수가 증가(p<0.05)하였고,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질문에 시술 전 3.00±1.16, 시술 후 2.20±0.42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자신의 불만족스러운 점에 대한 점수가 가장 많이 감소하였다. 자아존중감에 대한 총 점수는 28.60±4.72에서 26.00±3.43로 감소하여 (p<0.05), 염색 후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다.

#### <표4-15> 염색 시술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나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2.70±0.95 <sup>1)</sup> | 2.40±0.52 | 0.394   |
| 나는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3.00±0.82               | 2.70±0.48 | 0.394   |

(표 계속)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대체적으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2.50±1.27         | 2.50±1.18         | 1.000         |
|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 2.00±0.47         | 1.90±0.57         | 0.591         |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3.30±0.82         | 3.00±0.67         | 0.081         |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2.60±0.97         | 2.10±0.32         | 0.138         |
|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 한다        | 3.00±1.16         | 2.20±0.42         | 0.053         |
|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3.50±0.71         | 3.90±0.57         | 0.037*        |
|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2.80±1.23         | 2.40±0.70         | 0.104         |
|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 3.20±0.92         | 2.90±1.20         | 0.279         |
| <b>총 점수</b>                  | <b>28.60±4.72</b> | <b>26.00±3.43</b> | <b>0.036*</b> |

<sup>1)</sup> : Mean±S.D. \*P<.05,

p-value measured by paired t-test

#### 4) 복합시술(커트+펌+염색) 시술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

복합시술이 자아존중감 점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표4-16>와 같다. 세부 항목 중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p<0.05$ ),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한다( $p<0.05$ ),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p<0.01$ )에서 유의한 점수 변화를 보였으며, 총 점수도 28.78±6.48에서 25.78±4.47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복합시술이 자아존중감을 증가시켜주었다( $p<0.01$ ).

#### <표4-16>복합시술(커트+펌+염색) 시술 전·후 자아존중감 변화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나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하지 않는다 | 2.44±0.53 <sup>1)</sup> | 2.33±0.50 | 0.594   |

(표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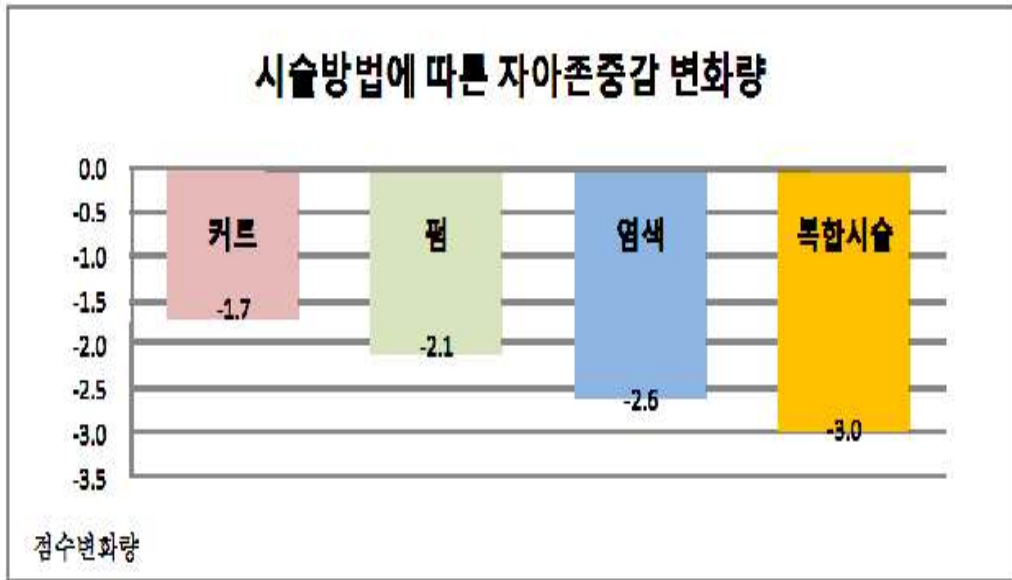
| 문 항                          | 시술 전              | 시술 후              | p-value        |
|------------------------------|-------------------|-------------------|----------------|
| 나는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 한다      | 2.56±0.53         | 2.78±0.44         | 0.169          |
| 대체적으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2.11±1.05         | 1.89±0.93         | 0.169          |
|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 2.00±0.87         | 1.67±0.50         | 0.081          |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3.56±0.88         | 3.11±0.93         | 0.035*         |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3.22±1.09         | 2.67±0.50         | 0.179          |
|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 한다        | 3.33±1.32         | 2.22±0.44         | 0.030*         |
|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3.89±1.05         | 4.33±0.71         | 0.104          |
|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2.78±1.39         | 2.11±1.05         | 0.004**        |
|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 2.89±1.27         | 2.67±1.23         | 0.169          |
| <b>총 점수</b>                  | <b>28.78±6.48</b> | <b>25.78±4.47</b> | <b>0.008**</b> |

<sup>1)</sup> : Mean±S.D. \*P<.05, \*\*P<.01

p-value measured by paired t-test

##### 5) 시술방법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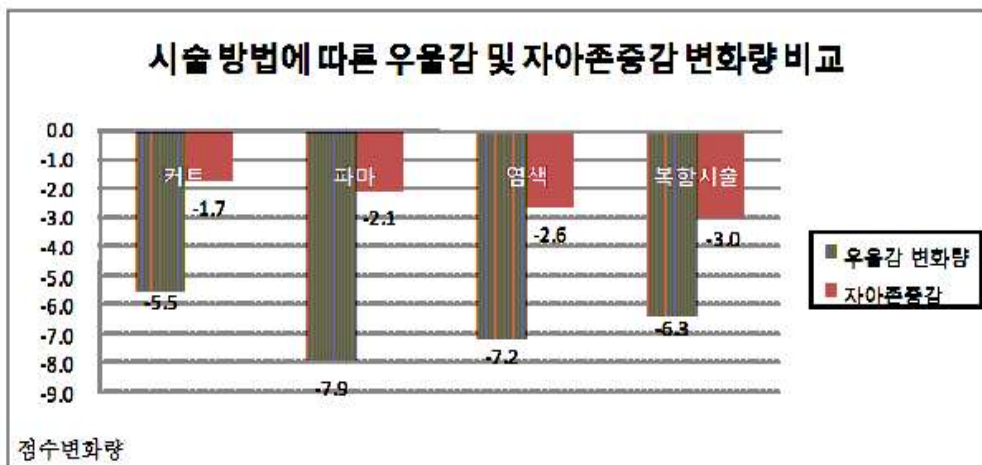
시술 방법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 비교는 <그림4-2>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술 후 각 군간에 방법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았지만 커트군, 펌군, 염색군, 복합시술군 모두 자아존중감이 증가하였다.



<그림4-2> 기술방법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량

#### 7. 기술 후 기술방법에 따른 우울감 및 자아존중감 변화량 비교

기술 후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의 변화량 비교는 <그림4-3>에 나타내었다. 모든 기술 후 우울감의 변화량이 자아 존중감의 변화량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4-3> 기술방법에 따른 우울감 및 자아 존중감 변화량 비교

## V. 결론

### 1. 요약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조사 대상자는 81세 이상이 50명 중 14명으로 총대상자의 28.0%로 가장 많았으며, 동거상태로는 38%에 해당하는 19명의 대상자가 혼자 산다고 조사 되었다. 주요 수입원은 국가보조금 및 후원금으로 44.0%에 해당하는 2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인 수입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노인들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계로가 응답자의 48.0%인 24명이 보통, 정기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정도로 허약하다고 답한 경우도 20.0%인 10명에 달하였다. 한 달 용돈의 액수는 36%인 18명이 20~30만원 이하라고 하였으며 30~40만원 이하가 30.0%인 15명으로 조사되었다.

연령, 현 동거상태, 주요 수입원, 현재 건강상태, 한 달 용돈 액수는 대조군, 커트군, 펴 군, 염색군, 복합 시술군 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노인들의 외모 의식 하나는 질문에 38.0%인 24명이 보통 이다 라고 답했으며 외모 만족 정도엔 56.0%인 28명이 만족하지 못한다고 답하여 대부분의 노인들이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걸로 나타났다.

미용서비스에 대한 관심의 정도는 보통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전체 대상자의 68.0%인 34명으로 조사되었다. 미용 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미용서비스는 커트가 52.0%로 가장 높았으며 커트를 하는 간격은 두 달에 1번이 47.9%로 가장 높았고, 펴 간격도 두 달에 1번이 33.3%, 염색 간격은 한 달에 1번이 31.3%로 조사되었다. 머리를 하는 목적의 질문엔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라고 대답한 사람이 48.0%인 24명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다. 받고 싶은 서비스 종류에서는 자주 이용하는 커트, 펴, 염색 등 보다는 피부 관리가 36.0%로 가장 높았으며 기타의견으로 손·발 마사지를 받고 싶다는 경우도 20.0%에 달하였다.

각 군의 외모의식정도, 미용서비스 관심정도, 가장 많이 이용하는 서비

스 종류, 커트간격, 펄 간격, 머리를 하는 목적, 받고 싶은 서비스 종류는 각 군간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동질성이 검증되었다.

시술 전 대조군, 커트군, 펄군, 염색군, 복합시술군의 우울감에 대한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전보다 내 모습이 추해졌다고 생각 한다는 문항에 대조군  $4.40 \pm 0.52$ , 커트군  $3.60 \pm 1.35$ , 펄군  $3.80 \pm 1.55$ , 염색군  $3.40 \pm 0.97$ , 복합시술군  $3.80 \pm 1.14$ ,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문항엔 대조군  $3.60 \pm 1.27$ , 커트군  $4.00 \pm 0.94$ , 펄군  $4.10 \pm 1.29$ , 염색군  $3.50 \pm 1.08$ , 복합시술군  $3.90 \pm 1.10$ 으로 다른 질문들에 비해 더욱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 아니라는 커트군과 복합시술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p=0.016$ 이라는 낮은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의 가설 1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술 전, 시술 후의 우울감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시술 전 커트군  $45.50 \pm 9.97$ 에서 시술 후  $40.00 \pm 10.04$ , 시술 전 펄군  $43.80 \pm 5.61$ , 시술 후 펄군  $35.90 \pm 4.77$ , 시술 전 염색군  $41.60 \pm 6.20$ , 시술 후 염색군  $34.40 \pm 6.28$ , 시술 전 복합시술군  $42.00 \pm 8.02$ , 시술 후 복합시술군  $35.67 \pm 7.70$ 으로 전체적으로 시술 전보다 시술 후 우울감이 감소하여 미용시술이 여성노인의 우울감에 영향을 끼쳤다.

가설 2를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술 전, 시술 후의 자아 존중감의 결과를 비교했을 때, 시술 전 커트군  $31.30 \pm 4.17$ , 시술 후 커트군  $29.60 \pm 3.34$ , 시술 전 펄군  $26.80 \pm 5.87$ , 시술 후 펄군  $24.70 \pm 5.31$ , 시술 전 염색군  $28.60 \pm 4.72$ , 시술 후 염색군  $26.00 \pm 3.43$ , 시술 전 복합시술군  $28.78 \pm 6.48$ , 시술 후 복합시술군  $25.78 \pm 4.47$ 으로 전체적으로 시술 전보다 시술 후 자아 존중감이 증가하여 미용시술이 여성노인의 자아 존중감에 영향을 끼쳤다.

가설 3을 검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미용시술 후 우울감은 커트군  $-5.5$ , 펄군  $-7.9$ , 염색군  $-7.2$  복합시술군  $-6.3$ 점으로 복합시술군이 가장 효과가 있을 거란 가설과 다르게 펄군이 우울감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트, 펄, 염색을 동시에

시술하여 시간이 길어져 약간의 지루함을 느낀 것으로 사료된다. 미용시술 후 자아존중감은 커트군 -1.7, 펌군 -2.1, 염색군 -2.6, 복합시술군 -3.0 점으로 가설과 같이 복합시술군이 자아존중감 증가에 가장 많이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한 미용시술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 미용시술이 여성노인의 우울감 감소, 자아 존중감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여성 노인의 우울감 감소 및 자아 존중감 향상을 위한 미용시술의 효과성을 평가한 본 연구는 여성 노인에게 전문적인 미용서비스를 시술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 것으로 생각된다.

## 2. 조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자 하는 모든 인간들의 욕구를 고령 사회를 넘어 초 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재에 노인들의 아름다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미용서비스에 대한 대책마련과 미용서비스를 시술 받음으로써 정신적·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이 조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조사 대상자를 복지관과 경로당에 등록되어있는 서울시 광진구에 위치한 여성노인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둘째, 조사 대상자들이 여성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미용서비스가 남성노인의 우울감과 자아존중감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발전된 연구를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제언

을 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모든 노인들이 아름답게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노인들을 위한 미용서비스도 점차 전문성을 띠며 다양해져야 할 것이고, 노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전문 인력과 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게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서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헤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미용서비스와 미용서비스를 보다 만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지과 노인의 기본 특성을 숙지한 미용복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미용서비스 분야의 영역의 확장을 이룰 수 있는 후속연구가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국내저서와 학위논문>

- 곽형심(1999), 『미용학 개론』, 정문각
- 권정순(2008) 노인 미용복지 서비스 이용실태와 만족도 한성대학교 석사논문
- 김광숙 외, 『네일케어 & 아트』, 고문사, 2000,
- 김규엽(2005) 노인의 여가활동이 생활만족도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금의(2007) 폼에 의한 모발의 물리화학적 변화에 관한 연구 한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기연외, 『피부관리학』, 수문사.
- 김기연외, 『미용학 개론』, 정문가.
- 김미정(2009) 미용서비스산업에서 지각된 대기시간이 서비스평가 및 재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혜 외(2000) 노년기 우울증 원인에 대한 경로분석 『한국노년학』
- 김보경(2008) 자가 미용교육 프로그램이 여성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박사논문
- 김수영(1998) 집단회상요법이 노인의 통증, 우울,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김영란(2002) 일반노인 시설노인 독거노인의 우울감 비교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희(2004) 미용서비스 품질이 미용실 이용고객의 관계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지숙(2008) 노인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김태현(1982) 가족해체와 공동체 위기, 21세기 논단, 12, 63-67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호정(2006) 실버세대의 미용실 이용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

## 사논문

- 남영선(2006) 여성노인의 가족생활 특성에 따른 가족복지 욕구에 관한 연구
- 노미경(2008) 집단미술치료가 노인성질환을 가진 노인들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석사논문
- 대통령특별위원회(1999). 『여성백서』
- 박진숙(2004) 헤어스타일 선호도 결정요인 분석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현숙(1993) 집단인지요법이 노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고독감에 미치는 효과 경북대학교 박사논문
- 박혜령(2004) 집단음악프로그램이 시설노인생활만족도 및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정은(1995) 여성노인의 여가활동참여 몰입도가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서지영(2005) 네일아트 일러스트레이션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선우덕 외(2001), 노인장기요양보호 욕구 실태 조사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손화희(1998) 재가복지 수혜노인의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생태학적 접근 고려대학교 석사논문
- 송애랑(2000) 여가활동프로그램 중재가 시설노인의 일상생활동작, 우울 및 삶의 질에 미치는 효과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미란(2002) 여성노인의 노화경험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복례(2006) 뇌졸중환자의 자아존중감과 우울감에 대한 미술치료와 효과에 관하여 한일장신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우순애(2002) 집단미술치료가 여성노인의 우울 및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석사논문
- 윤수용(2006) 미용서비스업이 관계마케팅요인이 관계질과 고객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경수(2003) 여성 노인의무용활동 참여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

명대학교 석사논문

이신숙(1994) 기혼여성의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노모와의 유대를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원경(2001) 『HAIR concepts & application』, 청구문화사

이인자(1976), 노인환자에 대한 통계적 관찰

이종화(2005) 여성독거노인의 우울과 자아존중감 및 건강증진 행위 『정신간호학회지』

이차숙(2007) 피부관리실의 고객만족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요인분석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임춘식(1996)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유풍출판사

임현정(2007) 노인 여가 프로그램이 노인의 생활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논문

장현일(1997) 노인 실태에 대한 고찰 전남대학교 석사논문

전지은(2003) 한국 여성노인의 역할상실 및 사회복지 의존도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논문

정호영(2009) 노년기 여성 우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논문

정소명(2008) 에센셜 오일을 이용한 피부관리가 여대생의 피부상태와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조성태 김진숙, 김희숙(2002), 헤어미용.(주)중앙 교육 진흥 연구소,

조태예(2009) 고령화 사회를 위한 노인 미술치료 프로그램의 활용방안 한서대학교 석사논문

차홍순(1985) 노인복지정책의 과제. 『한국노년학회지』 제 6권

최영경(1998) 한국여성의 화장문화에 관한 연구 : 여성잡지 미용 기사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형임(2008) 노인 자살생각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최은규(2006) 가시오가피, 보골지 및 고련피 추출물이 피부질환 및 피부미용관련 기전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岡村重夫(1972) 社會福祉學. 東京. 紫田書店

하성기(2007) 베이직 헤어커트의 응용에 관한 연구 용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한미옥(2004) 펴م 종류·펴제 유형·시술횟수가 모발 손상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

#### 학교 석사학위논문

- 황인자(2002) 여성노인의 빈곤원인과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재연(2006), 「국외 노인음악치료 연구에서 치료 목표 및 음악치료활동 형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논문
- 현희성(1983) 한국노인복지 정책의 형성과정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기 간행물>

- 통계청(2005) 장래인구 추계표 :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 김정선(1998) 가정노인과 양로원노인의 자아존중감, 일상생활활동능력,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대한가호학회지, 28(1), 148-158.
- Report on the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Gerontology, 1951, 5;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연감 (1971): 109;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 총람 (서울: 한국사회복지협의회, 1997), 10-11
- 미용교제 연구회, 미용종합 이론, 서울: 유신문화사, 1995.

#### <국외문헌>

- Bolduc C. Shapiro, Hair care product, Clin Dermatol, 19(4) (2001)
- Kaufman, S.R. (1986) The ageless self: sources of meaning in late life.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Kotler, Principles of Marketing, New York : Prentice hall, Inc., 1990,
- Upah, Gregory D.(1980), "Mass Marketing in service Retailing : A Review a good Product," Harvard Business Review, 61 (July- August)
- Schlossberg, N.K.(1990) Training counselors to work with older adults. Generations, XIV,

## <인터넷 사이트>

[www.bokji.net/](http://www.bokji.net/)

[www.naver.com](http://www.naver.com)

[www.mw.go.kr](http://www.mw.go.kr)

[www.welfare.net/](http://www.welfare.net/)

<http://www.ethicswelfare.net>

<http://alan.todaycorea.com/2003>

<http://blog.daum.net/daipapa/13542367>

## 부록 - < 설문지 : 미용서비스 이용실태 조사 >

|     |  |  |  |
|-----|--|--|--|
| No. |  |  |  |
|-----|--|--|--|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지의 목적은 귀하의 미용 서비스 이용실태와 우울감 및 자아 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입니다. 귀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오직 통계분석을 통해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이며, 귀하의 개인정보는 법에 의해 보호됨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8년 3월

한성대학교

예술대학원 뷰티예술학과

연구자 : 오 은 정

지도교수 : 최 근 희

1. 귀하의 연세는 어떻게 되십니까?

1) 만65세 ~ 만70세

2) 만71세 ~ 만75세

3) 만76세 ~ 만80세

4) 만81세 이상

2. 귀하는 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계십니까?

1) 배우자

2) 기혼자녀

3) 미혼자녀

4) 혼자

5) 기타

3. 귀하의 주요 수입원은 무엇입니까?

1) 자녀의 용돈

2) 저축 및 재산수입

3) 개인연금이나 보험

4) 본인이나 배우자가 일해서

5) 국가보조금 및 후원금

6) 기타 ( )

4. 귀하의 현재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1) 건강하다

2) 보통이다

3) 정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을 정도로 허약하다

- 4) 임원이나 장기 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매우 허약하다
5. 귀하께서는 한 달 용돈을 얼마나 쓰십니까?
- 1) 10만원 이하    2) 10만원~20만원 이하    3) 20만원~30만원 이하  
4) 30~40만원 이하    5) 40~50만원 이하    6) 50만원 이상
6. 귀하께서는 외모를 의식하십니까?
- 1) 많이 한다    2) 보통이다    3) 별로 안 한다
7. 현재 자신의 외모에 만족하십니까?
- 1) 만족 한다    2) 보통이다    3) 만족하지 못한다
8. 귀하께서는 미용서비스에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 1) 매우 많음    2) 약간 있음    3) 보통    4) 별로 없음    5) 전혀 없음
9. 미용서비스 중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미용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1) 컷트    2) 펌    3) 염색    4) 전혀 하지 않는다

9-1) 귀하는 컷트를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1) 2~3주에 1번    2) 한 달에 1번    3) 두 달에 1번    4) 불규칙적으로

9-2) 귀하는 펌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1) 한 달에 1번    2) 두 달에 1번    3) 불규칙적으로    4) 안한다

9-3) 귀하는 염색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1) 한 달에 1번    2) 두 달에 1번    3) 불규칙적으로    4) 안한다

10. 귀하께서 머리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 1) 젊어 보이기 위해    2) 단정하게 보이기 위해  
3) 좋은 인상을 주기위해    4) 기타(    )

11. 귀하께서 만약 미용 서비스를 받게 된다면, 어떤 것을 받고 싶은가요? (해당사항 모두 선택)

- 1) 컷트    2) 펌    3) 염색    4) 피부 관리  
5) 손, 발 마사지    6) 화장이나 매니큐어    7) 기타(    )

\* 다음은 어르신의 우울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느끼는 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br>호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조금그<br>렇다 | 매우<br>그렇<br>다 |
|--------|---------------------------------------|-----------------|-----------|----------|-----------|---------------|
| 1      | 쓸데없는 생각들이 떠올라 괴롭다                     |                 |           |          |           |               |
| 2      | 밖에 나가기보다는 주로 집에 있으려<br>한다             |                 |           |          |           |               |
| 3      | 나는 오래오래 살고 싶지 않다                      |                 |           |          |           |               |
| 4      | 앞날에 대해 걱정을 할 때가 많다                    |                 |           |          |           |               |
| 5      |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쁘지 않다                 |                 |           |          |           |               |
| 6      | 전보다 내 모습이 추해졌다고 생각 한다                 |                 |           |          |           |               |
| 7      | 나는 늘 즐겁고 행복하다                         |                 |           |          |           |               |
| 8      | 앞으로 내주위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이<br>많이 생길 것 같지 않다 |                 |           |          |           |               |
| 9      | 앞날에 대해 희망적으로 느끼지 못 한다                 |                 |           |          |           |               |
| 10     | 인생은 즐거운 것이 아니다                        |                 |           |          |           |               |
| 11     | 나는 가치 있는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을<br>것 같다       |                 |           |          |           |               |
| 12     |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렵다                    |                 |           |          |           |               |
| 13     | 농담을 들어도 재미가 없다                        |                 |           |          |           |               |
| 14     | 기분이 좋지 않은 편이다                         |                 |           |          |           |               |
| 15     |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들 특히 가족이 편<br>할 것 같다      |                 |           |          |           |               |

\* 다음은 어르신의 자아 존중감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느끼는 대로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 번호 | 문항                              | 전혀<br>그렇지<br>않다 | 그렇지<br>않다 | 보통<br>이다 | 조금<br>그렇다 | 매우<br>그렇다 |
|----|---------------------------------|-----------------|-----------|----------|-----------|-----------|
| 1  | 나도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                 |           |          |           |           |
| 2  | 나는 단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                 |           |          |           |           |
| 3  | 대체적으로 내가 실패자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                 |           |          |           |           |
| 4  |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은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                 |           |          |           |           |
| 5  |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           |          |           |           |
| 6  |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다     |                 |           |          |           |           |
| 7  | 대체적으로 나 자신에 만족하지 못한다            |                 |           |          |           |           |
| 8  | 나 자신을 좀 더 존중할 수 있으면 하고 바란다      |                 |           |          |           |           |
| 9  | 때때로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                 |           |          |           |           |
| 10 | 때때로 내가 전혀 유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           |          |           |           |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ABSTRACT

The actual condition of old females receiving beauty services and the effect of beauty operation on melancholia and self-respect

Oh, Eun Jeong  
Major in Hair Design  
Dept. of Beauty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Currently in Korea,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science, risen living standard and the improvement of social environment, the population of older people is increasing rapidly. Because of lengthened span of lives and decreased birth rate, the population of aged people who are more than 65 years old has increased rapidly, and it is forecast to enter into an aging society. This rapid aging makes the old people's physical, mental, social and economical issues to rise. Especially, old people show psychological symptoms such as depression and self-respect due to the loss of their role and the degeneration of their body and mental health as they get older. Therefore, the interest in the quality of senescence lives is getting higher. Because the desire of the beauty of human is infinite, chase after the beauty of human life is constant. 21<sup>st</sup> century is the society which centers about service industry and the importance of beauty industry covering considerable portion in service industry is ris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knowledge the actual conditions of having beauty services targeting the increasing population of the aged and to investigate how much the beauty services affect the old people

on melancholia and self-respect so that the beauty services can be provided for them to have happy declining years.

To achieve the goal, the subject of this study was a more than 65-year-old female residence in Gwanjin-gu, Seoul and the period of the study was from 2<sup>nd</sup>, March, 2009 to 5<sup>th</sup>, April, 2009. The questionnaires used in this study utilized the questions to grasp the actual conditions of old females receiving the beauty services, the depression measure standardized to Korean depression measure for the aged by Gi, Baeksuk(1996) from the simplified depression measure for the aged developed by Sheikh and Yesavage for old people(1986) and self-respect measure translated by Jun, Byung Jae(1974) from Rosenberg's self-respect measure (1965). The questionnaires were performed divided into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and into 10 people of control group without any operation, 10 people of cut group, 10 people of perm group, 10 people of dye group and 10 people of mixed(cut, perm and dye) group. The questionnaires were performed through FGI (Focused Group Interview) method due to the difficulties of self writing inquiries because of the nature of old people.

The collected information as a result of the inquiry is utilized with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sion 15.0, SPSS Inc., Illinois, USA).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whole subject and the trends of the beauty treatment is indicated as n(%) executing the frequency analysis and the comparison of each group was executed by chi-square test.

Before the operation, the verification of homogeneity in the groups of control, cut, perm, dye and mix was accomplished, and depression and self-respect were indicated as the average and the standard deviation.

Paired T-Test was utilized to compare melancholia and self-respect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according to the methods of the operation. ANOVA was applied to compare the fluctuation of

melancholia and self-respect according to the methods of the operation and it was verified with Duncan method after. The significance level of the whole statistics were executed within the level of  $p < 0.05$ .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age of the subjects, current living conditions, main source of income, current health conditions and the amount of monthly expenses did not show any distinctive difference among the groups of control, cut, perm, dye and mix.

Second, since there was no difference among each group shown in respect of the consciousness level of their appearances, the level of their interest in beauty services, the kinds of the services frequently received, the intervals between cuts, perms and dyes, the purpose of having hair treatment and the kinds of services they want to get, homogeneity was verified.

Third, though some questions were answered negatively compared to other question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each group in respect of the scores about melancholia of the groups of control, cut, perm, dye and mix before the operations.

Fourth, the fluctuation about melancholia among the groups of cut, perm, dye and mix after the operations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in each group, however, melancholia was decreased in every group in the order of perm, dye, mix and cut.

Fifth, though some questions were answered much negatively compared to other questions, the scores about self-respect of the groups of control, cut, perm, dye and mix before the operations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each group.

Sixth, though the amount of fluctuation of self-respect according to the methods of operation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difference, self-respect was increased in every group in the order of mix, dye,

perm and cut after the operations.

Therefore, it was informed that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about melancholia and self-respect depending on the beauty operations.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verification of hypothesis 1 of this study.

Comparing the result of melancholia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 melancholia was decreased after the operations in the whole as from  $45.50 \pm 9.97$  to  $40.00 \pm 10.04$  in the cut group, from  $43.80 \pm 5.61$  to  $35.90 \pm 4.77$  in the perm group, from  $41.60 \pm 6.20$  to  $34.40 \pm 6.28$  in the dye group and from  $42.00 \pm 8.02$  to  $35.67 \pm 7.70$  in the mixed group, and the beauty operations affected the old female's melancholia.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verification of hypothesis 2.

Comparing the result of self-respect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operations, self-respect was increased after the operations as from  $31.30 \pm 4.17$  to  $29.60 \pm 3.34$  in the cut group, from  $26.80 \pm 5.87$  to  $24.70 \pm 5.31$  in the perm group, from  $28.60 \pm 4.72$  to  $26.00 \pm 3.43$  in the dye group and from  $28.78 \pm 6.48$  to  $25.78 \pm 4.47$  in the mixed group, and the beauty operations affected the old female's self-respect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verification of hypothesis 3.

Different from the hypothesis that assumed there would be significant effect in the mixed group, the perm group showe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f melancholia after the beauty operations as  $-5.5$  in the cut group,  $-7.9$  in the perm group,  $-7.2$  in the dye group and  $-6.3$  in the mixed group. It is regarded that they felt somewhat boredom while operating cut, perm and dye simultaneously. In the way of the hypothesis, the mixed group showed the most significant effect on the increase of self-respect after the beauty operations as  $-1.7$  in the cut group,  $-2.1$  in the perm group,  $-2.6$  in the perm group and  $-3.0$  in the mixed group.

Based on the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may be proposed;

First, in order for the old people in Korea to spend their declining years beautifully, the beauty services for the aged must have professionalism and be various gradually. Also, since the professional human resources and agencies to satisfy the needs of the old people are insufficient, the institutional provisions for this should be prepared urgently.

Second, through the result of this study, prepare for the aging society, in order to be satisfied by various beauty services, professional beauty welfare human resources fully aware of welfare and basic characteristics of the aged should be trained and succeeding studies that can achieve the expansion of the beauty service industry must be continued.